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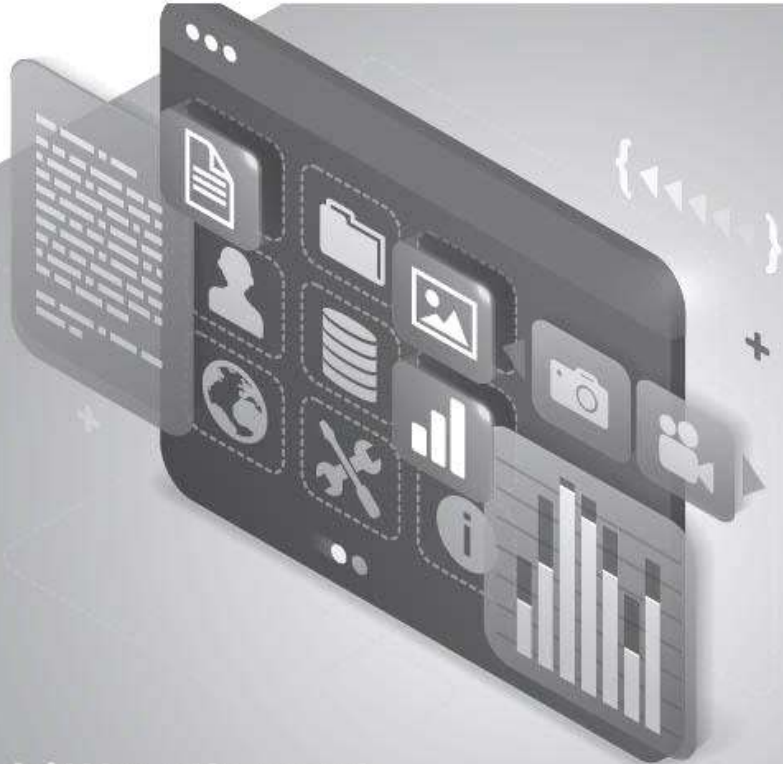


제119년차 총회본부 정책 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행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제119년차 총회본부 정책 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행정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 차례

총회본부/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6
총회본부 주요 민원사항 처리 절차	8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교단의 발전과 현황 분석	9
제118년차 총회 주요 사업 보고	75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	93

총회본부 /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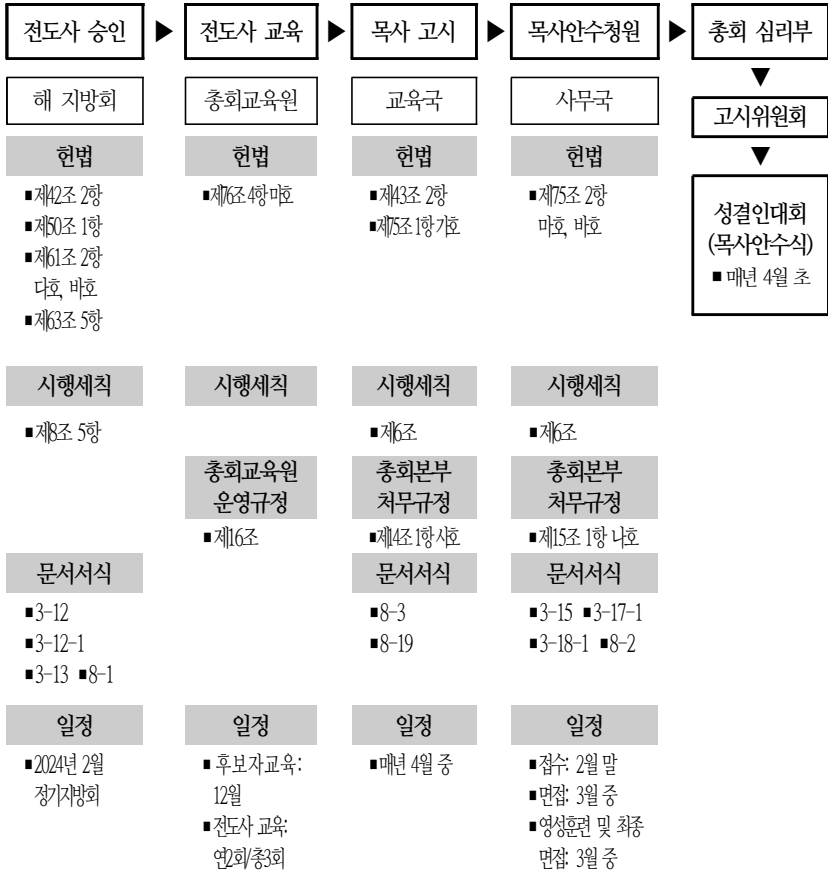
부서	담당자		직통	담당업무
총무실	문창국 총무	무	1001	교단행정 총괄
	정한초 팀장	장		총무실 총괄, 인사위
선교국 국내(9F) / 해외(8F)	송재홍 국장	장	1041	선교국 총괄
	손주현 팀장	장	1038	해외선교 부총괄 및 권역행정
	김상균 팀장	장	1023	국내선교, 북한선교 행정 및 재정
	전영욱 팀장	장	1024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OMS
	류호준 간사	사	1036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성결연맹
	정구성 간사	사	1093	해외선교 권역 및 행정 및 교육
	신문섭 간사	사	1032	선교국 행정
	김희경 사무간사		1034	해외선교 재정
	윤주희 사무간사		1033	선교국 재정
	안예은 사무간사		1021	국내선교 행정 및 재정
	이민지 사무간사		1031	선교국 행정
	■ 향존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해외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 의회부서: 선교부(경목단, 교목단, 사회선교단), 군선교부(군목단, 농어촌부)			
교육국 (7F)	강형규 팀장	장	1062	교육국 총괄, 개발, 출판
	조미정 팀장	장	1052	행정, 재정, 장학회, 문준경, 유통
	안용환 팀장	장	1054	홈페이지, 보급, 유통, 스토어
	강영아 간사	사	1066	교육과정, 청소년, 교재편집
	권미경 간사	사	1053	디자인, 출판, 교회음악부, 성청
	하수진 간사	사	1055	행사, 단행본, 디자인
	장주한 간사	사	1063	여름교재, SNS, 이대위, 신학교육
	김남선 간사	사	1065	교재개발, SNS, 홈페이지, 전도플랫폼
	이재훈 간사	사	1067	교재개발, 여름교재, 교육영상
	육준수 간사	사	1051	사랑마루, SNS, 기타행정 및 재정
	■ 향존위원회: 고시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역사편찬위원회 ■ 의회부서: 교육부, 청소년부, 교회음악부			

총회본부 / 총회 산하기관 주요 업무 및 담당자 안내

부서	담당자	직통	담당업무
사무국 기획정무 (2F)	송우진 국 장	1014	사무국 총괄
	박지훈 팀 장	1013	기획정무 총괄, 임원회, 대외, 재판
	박양우 팀 장	1012	헌연위, 선관위, 법제부
	김효진 간 사	1011	기획정무팀 행정, 재정
	■ 항존위원회: 재판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 의 회 부 서: 공천부, 법제부		
사무국 행정민원 (1F)	윤기중 팀 장	1075	행정민원 총괄, 심리, 서무, 통제
	이철주 간 사	1074	행정, 전산, 전자문서, 포상, 감사
	이현정 간 사	1073	감사, CIS, 물품, 지방회 문서
		1072	직인, 인사카드, 발급
	■ 항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 의 회 부 서: 심리부, 서무부		
평신도국 (6F)	이재동 국 장	1096	평신도국 총괄, 성결원
	김효종 팀 장	1099	평신도부, 사회복지부, 성결원
	조한나 사무간사	1100	재정, 평신도부, 기관재정
	유길현 사무간사	1098	행정, 사회복지부, 기관행정
	■ 의 회 부 서: 평신도부, 복지사업부		
경리과 (2F)	지선화 과 장	1106	경리업무 총괄
	한송이 간 사	1101	총회부분 담당
	이예슬 사무간사	1102	선교부문 담당
	홍가영 사무간사	1104	교육부문 담당
유지재단 성결회관	은호영 실 장	1112	행정총괄
	이영숙 간 사	1002	성결회관 행정, 재정
	박주빈 사무간사	1111	행정
총회교육원	김요한 간 사	1122	총회교육원 총괄
교역자공제회	김진규 국 장	1165	교역자공제회 총괄
	문성선 간 사	1163	행정, 재정 총괄
	이유미 사무간사	1161	행정, 재정

주요 민원사항 처리 절차

■ 전도사 승인부터 목사안수까지



■ 각종 증명서 발급

사무국 발급 서류	유지재단 발급 서류
■ 안수증명서(8-18) ■ 경력증명서(8-20) ■ 추천서(8-22, 23)	■ 관공서 제출용 서류 일체 ■ 은행 제출용 서류
	교역자공제회 발급 서류
	■ 연금가입 증명서 ■ 연금원납 증명서

제119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현황 분석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교단의 발전과 현황 분석

우리 교단은 매년 지교회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사무총회를 거쳐 정기지방회에 <교세 통계표>의 형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지방회는 이를 취합하여 총회에 보고함으로 우리 교단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살피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교세 통계표>를 정직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은, 지 교회의 발전과 교단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성결교회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교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확하게 배치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 본부가 분석하여 보고하는 한국 사회의 종교 현황과 교단의 현재 분석을 충실히 읽고 살핀다면 지교회의 전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지교회에서 보고한 교세 통계표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교단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한 한계점은 분석에 있어 교단의 <교세 통계표>가 지교회와 지방회의 보고 내용만을 집계한 것으로 정확도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으며, 총회비 산정 기준의 변화가 각 교회의 교세 보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교세의 변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교단의 교세변화는 아래의 <표15>와 같다. 2013년 2,716개였던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2023년 현재 2,916개로 2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 기간 교인수는 552,671명에서 385,727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제108년차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교회학교 학생수는 107,098명에서 58,923명으로 줄었다. 2023년 교세통계 보고에는 교회학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향후 데이터가 쌓이면 보다 세밀한 관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도별 교회, 세례교인, 새신자, 교회학교, 교인수

연도	교회수	세례교인	새신자	교회학교	교인수
2014년	2,753개	355,047명	86,747명	548,110명	552,671명
2015년	2,793개	319,914명	77,045명	491,397명	548,110명
2016년	2,813개	302,226명	73,627명	461,514명	491,397명
2017년	2,858개	301,048명	69,013명	454,453명	461,514명
2018년	2,845개	296,178명	61,472명	439,295명	454,453명
2019년	2,886개	292,955명	60,129명	430,928명	439,295명
2020년	2,897개	283,361명	46,462명	399,181명	430,928명
2021년	2,893개	282,172명	46,211명	390,964명	399,181명
2022년	2,895개	280,861명	46,373명	386,668명	390,964명
2023년	2,916개	280,093명	46,757명	385,727명	386,668명
2024년	2,914개	277,457명	45,231명	380,422명	385,727명
2024-2014	161개	-77,590명	-41,516명	-167,688명	-166,944명
연평균증감	16개	-7,759명	-4,152명	-16,769명	-13,912명

가. 교회 수 변화

2014년도부터 10년간 우리 교단은 161개의 교회가 늘어 매년 평균 16개의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111년차 총회본부 정책보고서”에 보고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32개 교회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10~20년 전에 비해 교회 개척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에 45개의 교회가 늘어 가장 많은 수가 늘었으며 2019년과 2015년에는 각각 41개와 40개 교회가 개척되었다. 반면 2018년도에는 13개의 교회가 줄었으며 2021년에도 4개의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2개의 교회가 줄어들어 2024년 현재 국내 성결교회는 2,914개 교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3년간 광역 지역별 교회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지난 3년간 광역지역 교회 수 변화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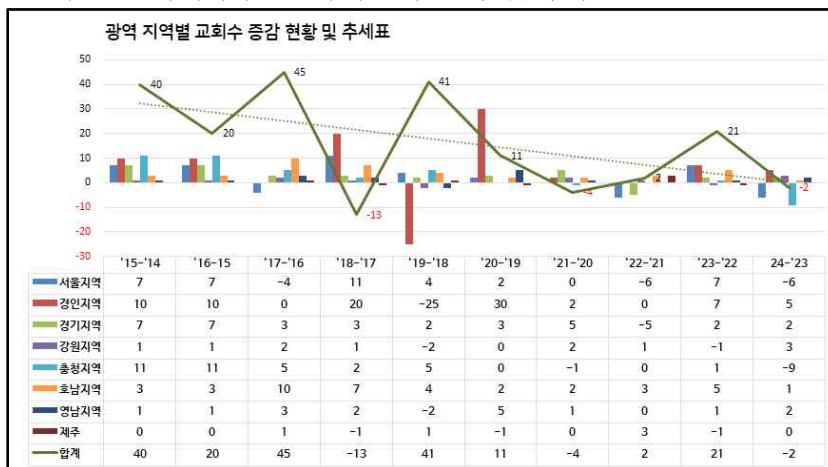
	2022년	'23-'22	2023년	'24-'23	2024년	'24-'21	비중
서울지역	607개	7개	614개	-6개	608개	1개	20.9%
경인지역	350개	7개	357개	5개	362개	12개	12.4%
경기지역	302개	2개	304개	2개	306개	4개	10.5%
강원지역	142개	-1개	141개	3개	144개	2개	4.9%
충청지역	626개	1개	627개	-9개	618개	-8개	21.2%
호남지역	462개	5개	467개	1개	468개	6개	16.1%
영남지역	384개	1개	385개	2개	387개	3개	13.3%
제주	22개	-1개	21개	0개	21개	-1개	0.7%
합계	2,895개	21개	2,916개	-2개	2,914개	19개	100%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국내 성결교회 교회 수는 2,895개 교회에서 2,914개로 19개 교회가 늘었다. 그러나 2022년에서 2023년에 21개 늘어난 교회 수가 지난해에는 오히려 2개 교회가 줄어 성장세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현재 전체 2,914개 교회 중 충청지역에 21.2%의 교회가 있으며, 서울과 호남이 각각 20.9%와 16.1%의 교회가 분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광역지역별 교회수 증감 추세는 아래 <그래프 1>과 같다.

<그래프 1> 광역지역별 교회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1) 서울지역 교회 수 변화

<표 3> 서울지역 연도별 교회 수 변화표

지방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14	평균
서울중앙	107	112	112	77	75	75	75	72	71	73	71	-36 (-6)	-3.6 (-0.9)
서울동	51	51	51	52	51	51	49	47	46	48	47	-4	-0.4
서울서	102	101	102	102	103	108	108	107	108	107	107	5	0.5
서울남	76	76	77	77	76	72	71	71	70	70	71	-5	-0.5
서울북	90	92	91	94	96	94	97	98	45	44	44	-46 (-1)	-4.6 (-0.3)
서울강서	80	82	76	78	78	81	81	79	77	79	78	-2	-0.2
서울강남	60	63	63	63	65	65	63	63	65	68	66	6	0.6
서울강동	33	29	30	32	32	33	34	34	34	33	33	0	0.0
서울제일				38	41	40	41	42	39	39	38	0	0.0
서울									52	53	53	1	0.1
합 계	599	606	602	613	617	619	619	613	607	614	608	9	0.9

국가 행정구역상 서울과 경기도 북부에 해당하는 서울지역의 10개 지방회 교회 수는 2014년 599개에서 2024년 608개로 10년간 9개 교회가 늘어 매년 1개 교회가 개척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지방회의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회는 2014년 107개 교회에서 2024년 현재 71개 교회로 36개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와 분할로 인해 38개의 교회가 빠져나간 영향이 절대적이다. 분할 당시 서울중앙지방회의 교회 수는 77개였으나 2024년 현재 71개 교회로 6개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0.9개씩 줄어든 것이다. 반면 서울제일지방회는 2017년 분할 당시 38개 교회가 보고되었으며, 2021년 41개 교회로 3개 교회가 늘었으나 2024년 현재 38개교회가 소속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서울동지방회는 2014년 51개 교회에서 2024년 47개 교회로 줄어들어 동기간 4개의 교회가 3~4년에 1개씩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서지방회는 2014년 102개 교회에서 2024년 107개 교회로 지난 10년간 5개 교회가 늘어 평균 2년에 1개 교회씩 신규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지방회는 2014년 76개교회에서 2024

년 현재 71개교회로 5개 교회가 줄어들었다.

서울북지방회는 2014년 90개였던 교회가 2024년 현재 44개인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이는 서울지방회와 2022년도에 분할한 영향 때문이다. 2022년도 당시 서울북지방회는 45개 교회, 서울지방회는 52개 교회를 보고해 도합 97개 교회로 8년간 7개 교회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회와의 분할 이후 서울북지방회는 1개 교회가 줄어들었고, 서울지방회는 52개 교회에서 53개 교회로 1개 교회가 늘어났다.

서울강서지방회는 2014년 80개 교회에서 2024년 78개 교회로 2개 교회가 줄었으며, 서울강남지방회는 60개 교회에서 66개 교회로 6개 교회가 늘어났다. 이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개척된 것으로 연평균 0.5개의 서울 서지방회보다 약간 상회한 수치이다. 서울강동지방회는 33개 교회로 변동이 없다.

2) 인천지역 교회 수 변화

<표 4> 인천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 방 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3-'24	평균
인천동	67	68	67	69	42	69	69	72	71	71	70	3	0.3
인천서	51	57	60	61	61	63	63	64	63	63	65	14	1.4
인천남	44	46	46	50	50	50	52	53	55	56	51	7	0.7
인천중앙	49	48	48	49	46	47	49	48	49	54	59	10	1.0
부 천	59	58	57	39	39	36	35	35	35	35	35	-24 (-4)	-2.4 (-0.4)
경 인	41	44	43	43	42	43	43	42	43	45	47	6	0.6
부 흥				30	36	38	37	34	34	33	35	5	0.5
합 계	311	321	321	341	316	346	348	348	350	357	362	51	5.1

인천지역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등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7개 지방회가 소속되어 있다. 2024년 현재 인천지역 전체의 교회수는 362개 교회로 2014년 311개에 비해 51개 교회가 늘어 전국 8개 지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이는 연평균 5.1개씩 교회가 개척되어 연평균 16.4%의 성장률을 보인다.

인천동지방회는 동기간 3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67개에서 70개 교회로 늘었

다. 인천시지방회는 51개 교회가 65개로 10년간 14개 교회가 늘어 인천지역 전체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개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7개가 늘어난 경서지방회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것이다.

인천남지방회는 44개 교회가 51개 교회로 7개 교회가 늘었고, 인천중앙지방회도 2024년도 49개 교회에서 10개 교회가 늘어 지난해 59개 교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지방회는 부천지방회로 동기간 24개 교회가 줄었는데, 이는 2017년도 부흥지방회와의 분할에 따른 30개 교회가 이탈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4개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인지방회는 41개 교회가 47개 교회로 6개 교회가 늘었으며, 부흥지방회는 30개 교회에서 35개 교회로 5개 교회가 늘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경기지역 교회 수 변화

서울 이남인 경기도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경기지역에는 6개 지방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2014년 280개 교회가 2024년 306개 교회로 10년간 26개 교회가 늘어 연평균 2.6개 교회가 신규 개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5> 경기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3-'13	평균
경기동	44	45	45	44	45	46	47	47	48	49	51	7	0.7
경기중앙	39	43	46	50	50	47	47	44	42	41	43	4	0.4
경기남	67	68	68	67	66	66	67	68	67	66	65	-2	-0.2
경 기	51	51	50	50	51	54	56	53	53	54	52	1	0.1
경기서	47	46	47	46	46	49	48	46	47	46	46	-1	-0.1
경 서	32	34	34	36	37	36	38	40	45	48	49	17	1.7
합 계	280	287	290	293	295	298	303	298	302	304	306	26	2.6

경기동지방회는 44개 교회가 51개 교회로 7개 교회가 늘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경기중앙지방회는 39개 교회에서 43개 교회로 4개 교회가, 경기지방회는 51개 교회에서 52개 교회로 1개 교회가 지난 10년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서지방회는 32개 교회에서 49개 교회로 무려 17개 교회가 늘었는데, 이는 전국 지방회에서 단연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남지방회와 경기서지방회는 각각 67개 교회에서 65개 교회, 47개

교회에서 46개 교회로 2개 교회와 1개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4) 강원지역 교회 수 변화

<표 6> 강원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14	평균
강원동	47	47	47	48	47	46	46	46	48	47	49	2	0.2
강원서	86	87	89	50	49	50	50	51	51	51	51	-35 (1)	-3.5 (0.1)
강원				39	39	39	41	41	43	43	44	5	0.7
합계	133	134	136	137	135	135	137	138	142	141	144	11	0.1.1

행정구역상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강원지역은 3개 지방회가 소속되어 있다. 2014년 강원지역의 교회 수는 133개였으며, 지난 10년간 11개 교회가 늘어 144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원동지방회는 47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늘었으며, 강원서지방회는 2014년 86개 교회가 2017년 강원지방회와 분할되며 50개 교회로 줄었고, 이후 51개 교회로 1개 교회가 늘었다. 강원지방회는 2017년 분할 당시 39개 교회였으나 7년 후인 2024년 44개 교회로 매년 0.7개 교회씩 늘었다.

따라서 통계상으로는 강원서지방회가 절대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원지역 3개 지방회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며, 강원지방회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5) 충청지역 교회 수 변화

충청지역은 국가 행정구역상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교단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2014년도 충청지역의 교회 수는 605개로 서울지역의 599개보다 6개가 많았다. 2024년도에는 연평균 1.3개 교회씩 총 13개 교회가 늘어나 618개 교회가 충청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서울지역보다 10개의 교회가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지난 충청지역의 교회 수 성장세는 정체 중이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에 있는 3개 지방회가 지난해 보다 역성장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지방회는 2014년 42개 교회

에서 38개 교회로 4개 교회가 줄었으며, 청주지방회도 69개 교회에서 65개 교회로, 충청지방회는 59개 교회에서 57개 교회로 각각 4개 교회와 2개 교회가 줄었다.

<표 7> 충청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14	평균
충 북	42	44	45	44	44	44	43	42	42	40	38	-4	-0.4
청 주	69	71	74	73	74	72	71	71	71	71	65	-4	-0.4
충 청	59	59	60	60	59	59	58	57	57	56	57	-2	-0.2
충 서	103	103	103	104	104	105	105	106	106	106	108	5	0.5
충서중앙	59	59	59	59	59	59	61	61	61	61	60	1	0.1
대전동	69	70	70	71	72	73	72	71	69	71	71	2	0.2
대전서	48	49	48	48	48	48	48	49	49	49	49	1	0.1
대전중앙	47	48	49	49	50	50	50	50	50	50	49	2	0.2
충 남	68	70	68	68	69	68	69	69	69	69	69	1	0.1
새종광주	41	43	45	47	49	50	50	51	52	54	52	11	1.1
합 계	605	616	621	623	628	628	627	627	626	627	618	13	1.3

충청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상 지방회는 2014년에 비해 교회 수가 모두 늘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충서지방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 특히 2019년 628개 교회에서 2020년 627개 교회로 줄어든 이후 계속 정체하다 지난해 9개 교회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상으로 교회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6) 호남지역 교회 수 변화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은 충청지역과 서울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2014년 431개 교회에서 연평균 3.7개씩 늘어나 2024년 현재 468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지방회는 지난 10년간 3개 교회가 늘 46개 교회에서 49개 교회가 되었으며, 전주지방회는 53개 교회에서 59개 교회로 6개 교회가 늘었다. 반면 전북중앙지방회는 호남지역 중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교회 수가 줄었는데 2014년 37개 교회에서 35개 교회로 2개 교회가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군산지방회는 2014년 47개였던 교회 수가 지난해 7개

늘어난 54개 교회가 되었으며,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서지방회는 52개, 67개 교회에서 56개, 73개 교회로 각각 4개, 6개 교회가 늘어났다. 광주지방회와 전남지방회도 각각 1개와 3개 교회가 늘어, 31개 교회에서 32개 교회로, 36개 교회에서 39개 교회로 보고하였다. 전남중앙지방회는 2014년 29개 교회가 2024년 31개 교회가 되었으며, 광주동지방회는 동 기간 33개 교회에서 7개 늘어난 40개 교회로 보고되었다.

<표 8> 호남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방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3-'13	평균
전 북	46	49	50	53	53	52	51	52	50	49	49	3	0.3
전 주	53	53	53	53	55	55	57	58	60	61	59	6	0.6
전북중앙	37	36	36	38	37	36	37	37	37	36	35	-2	-0.2
군 산	47	47	49	51	52	52	52	53	52	52	54	7	0.7
전남동	52	51	54	53	53	54	54	55	55	56	56	4	0.4
전남서	67	67	68	69	70	70	69	71	71	73	73	6	0.6
광 주	31	31	32	32	32	32	32	32	32	32	32	1	0.1
전 남	36	37	35	36	36	37	37	35	36	37	39	3	0.3
전남중앙	29	28	30	29	25	27	27	26	28	31	31	2	0.2
광주동	33	35	37	37	42	42	43	43	41	40	40	7	0.7
합 계	431	434	444	451	455	457	459	462	462	467	468	37	3.7

다행히 최근 3년간 호남지역 교회 수의 증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체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방회와 전북중앙지방회만 동 기간 교회 수가 줄었고, 다른 지방회는 모두 늘어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영남지역 교회 수 변화

경상남북도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포함하는 영남지역은 2014년 375개 교회에서 12개 늘어난 387개 교회가 2024년 현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북지방회는 46개 교회에서 4개 늘어난 50개 교회로, 대구지방회와 경북서지방회도 각각 40개 교회, 60개 교회에서 42개 교회, 62개 교회로 2개 교회씩 늘었으며, 경남지방회는 48개 교회에서 4개 늘어난 52개 교회가 2024년 현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9> 영남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 방 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14	평균
경 북	46	46	49	49	49	49	49	49	49	50	50	4	0.4
대 구	40	39	39	40	40	42	42	41	42	42	42	2	0.2
경 북 서	60	60	61	61	61	61	61	61	62	62	62	2	0.2
부 산 동	35	35	35	35	33	33	33	33	32	32	31	-4	-0.4
부 산 서	47	47	48	49	49	50	50	50	49	48	46	-1	-0.1
경 남	48	49	49	49	49	50	51	52	51	51	52	4	0.4
경 남 서	67	68	66	66	66	66	66	66	66	66	47	-20	-2.0
창원중앙											23	0	0.0
울 산	32	32	32	32	32	33	33	33	33	34	34	2	0.2
합 계	375	376	379	381	379	384	385	385	384	385	387	12	1.2

반면 부산동지방회와 부산서지방회는 각각 4개 교회와 1개 교회가 줄어 35개 교회에서 31개 교회, 47개 교회에서 46개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남서지방회는 창원중앙지방회와 나뉘었는데, 2014년 67개였던 경남서지방회의 교회 수가 2024년 현재 경남서지방회 47개, 창원중앙지방회 23개로 70개 교회인 것으로 보아 분할 과정에서 3개 교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방회도 2024년 현재 2014년 32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늘어난 34개 교회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8) 제주지역 교회 수 변화

<표 10> 제주지역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지 방 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4-'14	평균
제주직할	19	19	20	19	20	19	19	22	22	21	21	2	0.2

제주지역은 2014년도 19개 교회에서 2개 교회가 늘어난 21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2024년 현재 보고되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우리 교단의 교회 수는 161개 교회, 5.8% 증가하였는데, 교회 수 증가는 인천지역이 51개로 가장 많으며 37개의 호남지역과 26개의 경기지역이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비율로는 역시 인천지역이 16.4%가 늘어나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나 10.5%의 제주지역이 9.3%의 경기

와 8.6%의 호남지역을 제치고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앞서 <그래프 1>에서 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교회 수가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라할 수 있다.

<표 11> 연도별 교회수 변화표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14	평균	증가 비율
서울	599	606	602	613	617	619	619	613	607	614	608	9	0.9
인천	311	321	321	341	316	346	348	348	350	357	362	51	5.1
경기	280	287	290	293	295	298	303	298	302	304	306	26	2.6
강원	133	134	136	137	135	135	137	138	142	141	144	11	1.1
충청	605	616	621	623	628	628	627	627	626	627	618	13	1.3
호남	431	434	444	451	455	457	459	462	462	467	468	37	3.7
영남	375	376	379	381	379	384	385	385	384	385	387	12	1.2
제주	19	19	20	19	20	19	19	22	22	21	21	2	0.2
합계	2,753	2,793	2,813	2,858	2,845	2,886	2,897	2,893	2,895	2,916	2,914	161	5.8%

나. 교인 수 변화

그렇다면 교인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2024년 <교세 통계표>에 보고된 우리 교단의 교인 수는 총 380,198명인 것으로 합산되었다. 2014년 우리 교단의 교인 수는 548,110명이었는데 이에 비해 167,912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13년도 교인 수의 30.6%p에 해당하는 비율로 연평균 16,791명씩 줄어 들고 있으며 감소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동기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교인이 줄어든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43,732명이 줄었다. 반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지역은 호남지역으로 2014년에 비해 43.3%p의 교인 감소를 보였다.

2015년과 2016년에 교인수가 각각 35,438명과 17,852명이 줄어든 것은 제 108년차 교단 총회(2014.05.27.~29.)에서 결의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의해 전국 모든 지방회에서 교인 수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교단의 규모는 줄었지만,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교인 수 부풀리기 대신에 실질 교인 수를 파악할 수 있어 교단 발전 정책 수립에 보다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표 12> 연도별 교인수 변화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4	177,302	59,037	53,401	21,972	99,203	78,510	56,333	2,352	548,110
'15	167,338	48,883	40,844	19,337	94,560	64,707	53,582	2,146	491,397
'16	156,662	40,848	38,934	18,775	92,288	59,939	52,136	1,932	461,514
'17	151,083	44,132	36,818	18,628	90,241	59,286	52,383	1,882	454,453
'18	144,483	41,364	36,243	17,586	88,550	58,030	51,036	2,003	439,295
'19	140,570	40,442	35,682	17,903	88,207	57,058	49,036	2,030	430,928
'20	131,669	36,788	32,639	16,572	79,936	53,164	46,698	1,715	399,181
'21	130,979	37,144	31,241	16,215	79,243	50,103	44,307	1,732	390,964
'22	133,307	36,176	31,846	16,002	78,506	47,345	41,695	1,791	386,668
'23	134,427	36,084	32,350	16,022	77,349	47,121	40,709	1,665	385,727
'24	133,570	35,981	32,217	15,775	76,060	44,483	40,283	1,829	380,198
증감	-43,732	-23,056	-21,184	-6,197	-23,143	-34,027	-16,050	-523	-167,912
평균	-4,373.2	-2,305.6	-2,118.4	-619.7	-2,314.3	-3,402.7	-1,605	-52.3	-16,791.2
증감폭	-24.7%	-39.1%	-39.7%	-28.2%	-23.3%	-43.3%	-28.5%	-22.2%	-30.6%

<그래프 2> 광역지역별 교인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1) 서울지역 교인 수 변화

<표 13> 서울지역 교인수 변화표

	서울중앙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서울경서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제일	서 울
'14	36,238	10,350	36,812	30,615	20,769	17,186	17,119	8,213		
'15	35,381	8,642	32,905	30,752	18,381	16,011	18,026	7,240		
'16	32,568	6,334	31,298	31,158	17,931	15,057	14,884	7,432		
'17	20,050	6,281	31,883	30,703	15,813	14,337	13,824	6,478	11,714	
'18	19,731	6,239	30,063	30,185	14,726	15,241	9,863	6,821	11,614	
'19	21,460	6,330	27,585	29,390	14,097	13,769	9,713	6,582	11,644	
'20	20,497	5,969	25,326	27,183	12,579	13,363	8,897	6,313	11,542	
'21	20,912	5,713	24,482	26,721	13,089	13,113	9,417	6,194	11,338	7,786
'22	21,597	5,648	25,331	27,185	5,227	13,147	9,461	6,132	11,793	
'23	22,162	5,415	25,839	27,299	5,299	12,764	9,567	5,689	11,245	
'24	23,524	5,224	26,594	27,548	5,252	12,495	9,768	5,117	10,761	
증감	-12,714 (3,474)	-5,126	-10,218	-3,067	-15,517 (25)	-4,691	-7,351	-3,096	-953	-499
평균	-1,271.4 (496)	-512.6	-1,021.8	-306.7	-1,551.7 (12.5)	-469.1	-735.1	-309.6	-95.3	-49.9
증감폭	-35.1% (17.3%)	-49.5%	-27.8%	-10.0%	-74.7% (0.5%)	-27.3%	-42.9%	-37.7%	-8.1%	-6.4%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지역의 교인 수 변화는 위 <표 13>과 같다. 2014년 36,238명의 교인이 보고된 서울중앙지방회는 지난 10년간 12,714명이 줄어 23,524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와 나뉘며 11,714명의 교인이 떨어져 나간 것을 고려하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1,764명의 교인이 줄어 20,050명이었으나, 이후 16,576명이 늘어나 실제로는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24년간 서울중앙지방회는 3,474명의 교인이 늘었고, 이는 연평균 496명씩 늘어난 것이다. 2017년 이후 서울중앙지방회는 17.3% 성장하였다.

서울동지방회는 2014년 10,350명의 교인을 보고하였으나 2024년에는 5,224명에 그쳐 5,12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교인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708명과 2,308명이 준 것은 앞서 이야기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후과로 지교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교인 명단을 대폭 정리한 것의 결과로 보인다.

서울서지방회는 2013년 36,812명의 교인에서 2024년 26,594명으로 10,218명이 줄어 전체 교인수의 27.8%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지방회와 마찬가지로 2015년 교인수가 전년에 비해 3,907명이 준 것은 교인 명단 정리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2014년 30,615명이던 서울남지방회의 교인수는 10.0%p에 해당하는 3,067명이 줄어 2024년 현재 27,548명으로 보고되었다.

2022년 서울지방회와 나란 서울북지방회는 2014년 20,769명이던 교인수가 74.7%가 줄어든 5,2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방회 분할 전 해인 2021년까지 서울북지방회는 3,894명의 교인이 줄어들어 7년간 연평균 556명씩 감소하였으나, 분할 해인 2022년 서울북지방회 5,227명과 서울지방회 7,786명, 총 13,013명으로 보고되어, 전년에 비해 76명만 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2년간 서울북지방회는 25명의 교인이 늘어 5,252명을 보고하였다.

2014년 서울강서지방회의 교인 수는 17,119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12,495명으로 지난 10년간 4,691명, 27.3%p 감소하였다. 서울강남지방회도 동 기간 교인 수가 17,119명에서 9,768명으로 42.9%에 해당하는 7,351명이 줄었다. 서울강남지방회의 교인 수는 2016년에 전년 대비 3,142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7.4%에 해당하는 숫자로, 역시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의 교인 수는 11,714명이었으며 2024년 현재 5,117명으로 953명, 8.1%p 감소하였으며, 서울지방회는 2022년 분할될 당시 7,786명이던 교인수가 7,287명으로 499명, 6.4%p가 줄어들었다.

2022년부터 3년간 서울지역의 교인 수는 133,307명에서 133,570명으로 263명이 늘었으나, 전년 대비 2023년에 1,120명이 늘었던 교인 수가 2024년에는 857명이 준 것은 추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천지역 교인 수 변화

인천지역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교인 수 변화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2014년 59,037명이던 인천지역의 교인 수는 2024년 현재 23,056명이 준 35,9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인 수의 39.1%가 줄어든 것이다.

인천동지방회의 2014년도 교인 수는 12,677명이었으며,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51명씩 줄어, 지난해 교인 수가 2014년 대비 27.7%p가 감소한 9,166명으로 보고되었다. 인천서지방회의 2014년도 교인 수는 14,994명이었으나

42.1%p가 감소하여 8,685명으로 보고되었다. 인천남지방회도 2014년 11,288명 대비 31.1%p 감소한 7,779명으로 2024년 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인천중앙지방회는 2014년 보고된 6,819명 교인 수의 56.0%에 해당하는 3,819명이 감소한 3,000명의 교인을 2024년도 교세통계로 보고하였다.

<표 14> 인천지역 교인 수 변화표

	인 천 동	인 천 서	인 천 남	인천중앙	부 천	경 인	부 흥
'14	12,677	14,994	11,288	6,819	8,401	4,858	
'15	10,951	12,275	10,607	4,811	8,036	2,203	
'16	10,219	12,190	9,976	3,853	2,627	1,983	
'17	10,121	11,463	9,560	3,360	2,308	2,682	4,638
'18	11,038	10,841	8,848	3,085	2,195	1,814	3,543
'19	9,908	10,763	8,717	3,030	1,965	1,820	4,239
'20	8,844	9,422	8,033	2,884	1,840	1,681	4,084
'21	9,256	9,370	7,905	2,936	1,957	1,693	4,027
'22	9,247	8,839	7,798	2,782	2,001	1,656	3,853
'23	9,514	8,829	7,777	2,645	2,251	1,711	3,357
'24	9,166	8,685	7,779	3,000	2,638	1,624	3,089
증감	-3,511	-6,309	-3,509	-3,819	-5,763	-3,234	-1,549
평균	-351.1	-630.9	-350.9	-381.9	-576.3	-323.4	-221.3
증폭	-27.7%	-42.1%	-31.1%	-56.0%	-68.6%	-66.6%	-33.4%

지난 10년간 인천지역에서 교인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방회는 부천지방회로 전체 교인수의 68.6%가 줄었으며, 경인지방회도 동 기간 66.6%가 감소하였다. 부천지방회는 2015년도 8,036명으로 보고한 교인수를 2016년에는 2,627명으로 전년 대비 67.3%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조치로 보기에는 너무 감소 폭이 크다 할 수 있다. 다만, 2017년도 부흥지방회와 분할된 것을 고려할 때 이 기간 행정적인 조치에 따른 결과로 일부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2014년도 경인지방회의 교인수는 4,858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66.6%가 감소한 1,624명만 보고하였고, 2017년 분지방한 부흥지방회는 4,638명의 교인수가 7년 후인 2024년에는 3,089명으로 줄어 33.4%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천지역의 교인수 감소폭은 전체 8개 광역지역 중 3위에 해당하며 대체로 상회비 납부 방식의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경기지역 교인 수 변화

<표 15> 경기지역 교인 수 변화표

	경 기 동	경기중앙	경 기 남	경 기	경 기 서	경 서
'14	8,898	6,911	10,893	11,663	10,496	4,540
'15	7,015	4,158	10,035	8,177	9,448	2,011
'16	6,335	3,973	9,849	7,273	9,523	1,981
'17	6,185	3,910	8,311	7,336	9,113	1,963
'18	5,703	4,031	8,516	6,813	9,282	1,898
'19	5,624	3,874	8,537	7,055	8,815	1,777
'20	5,092	3,909	7,322	6,035	8,541	1,740
'21	5,010	3,602	7,016	6,055	7,568	1,990
'22	5,143	3,685	7,206	5,991	7,240	2,581
'23	4,893	3,983	7,368	6,044	7,211	2,851
'24	4,936	3,983	7,288	5,922	7,332	2,756
증 감	-3,962	-2,928	-3,605	-5,741	-3,164	-1,784
평 균	-396.2	-292.8	-360.5	-574.1	-316.4	-178.4
증감폭	-44.5%	-42.4%	-33.1%	-49.2%	-30.1%	-39.3%

경기지역의 각 지방회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인 수 변화는 위의 <표 15>와 같다. 2015년 53,401명이던 경기지역 교인 수는 2024년 현재 32,217명으로 파악되어 동 기간 21,184명, 전체 경기지역 교인의 39.7%가 감소하였다. 이는 호남지역에 이어 두 번째 큰 감소세이다.

경기동지방회의 2014년 교인 수는 8,898명이었으나 지난 10년간 전체 44.5%p에 해당하는 3,962명이 감소하여 2024년에는 4,936명이라 보고하였다. 경기중앙지방회도 6,911명이던 2014년 교인수의 42.4%에 해당하는 2,928명이 감소한 3,983명으로 보고하였으며, 경기남지방회 역시 2014년 10,893명이던 교인수가 33.1%, 3,605명이 감소하여 7,288명으로 보고되었다.

경기지방회는 경기지역 6개 지방회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9.2%p가 감소하였는데, 11,663명이던 2014년도 교인수가 5,741명이 감소하여 2024년 현재 5,922명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지방회와 경서지방회도 지난 10년간 교인수가 각각 30.1%와 39.3%씩 감소하여 2024년 현재 7,332명과 2,756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방회는 교인 수 감소가 원만하게 이어졌으나 경기중앙지방회와 경기지방회, 경서지방회는 2015년도 각각 전년 대비 2,753명과 3,486명, 2,529명이 줄어 제108년차 교단 총회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4) 강원지역 교인 수 변화

강원지역의 교인 수 변화는 오른쪽 표와 같다. 2014년 21,972명으로 보고 된 강원지역 교인 수는 2024년 6,197명이 줄어든 15,775명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전체 교인 수의 28.2%p가 줄어든 상황이다.

강원동지방회는 2014년도 교인수가 7,964명에 비해 39.9%가 줄어든 4,785명으로 2024년도 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강원서지방회 또한 14,008명이던 2014년의 교인수에서 51.9%가 줄어든 6,735명으로 2024년 교인 수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총회비 세입구조 변경’에 따른

<표 16> 강원지역 교인 수 변화표

	강 원 동	강 원 서	강 원
'14	7,964	14,008	
'15	6,981	12,356	
'16	6,599	12,176	
'17	6,432	7,650	4,546
'18	6,080	7,073	4,433
'19	6,058	7,370	4,475
'20	5,464	6,850	4,258
'21	5,288	6,842	4,085
'22	5,219	6,598	4,185
'23	5,074	6,640	4,308
'24	4,785	6,735	4,255
증감	-3,179	-7,273 (-915)	-291
평균	-317.9	-1,039 (-91.5)	-41.6
증감폭	-39.9%	-51.9% (-11.9)	-6.4%

교인 수 정정과 더불어 2017년도에 실시된 강원지방회와의 분할에 따른 여파로 파악이 된다. 분할 전인 2016년도 강원서지방회의 교인수는 12,176명이었는데, 분할 당시 강원서지방회는 7,650명, 강원지방회는 4,546명을 보고하여 전년에 비해 20명만이 감소한 상황이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서지방회의 교인수는 전체의 11.9%p에 해당하는 915명이 줄었고 동 기간 강원지방회는 6.4%에 해당하는 291명이 줄어 2024년 4,255명으로 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5) 충청지역 교인 수 변화

<표 17> 충청지역 교인 수 변화표

	충 북	청 주	충 청	충 서	충남	대전동	대전서	대전중	충 남	세종
'14	4,710	11,582	7,668	21,233	7,986	11,217	7,658	10,705	11,029	5,415
'15	4,300	11,183	7,557	21,353	8,104	10,211	6,779	8,832	10,719	5,522
'16	4,112	11,800	7,194	21,322	7,688	9,252	6,745	8,144	10,446	5,585
'17	4,226	11,085	6,628	21,234	7,245	9,028	6,606	8,399	9,996	5,794
'18	4,236	10,185	6,494	21,692	7,042	8,168	6,513	8,246	10,247	5,727
'19	4,201	10,495	6,587	21,699	7,301	7,778	6,485	8,208	9,708	5,745
'20	3,848	10,254	6,001	17,218	6,524	6,892	6,213	7,949	9,707	5,330
'21	3,779	10,274	6,715	17,120	6,619	6,751	5,789	8,015	9,077	5,104
'22	3,746	10,334	6,870	16,929	6,441	6,605	5,979	7,958	8,638	5,006
'23	3,762	9,952	6,836	17,093	6,487	6,445	5,657	7,903	8,464	4,750
'24	3,667	8,974	7,414	17,235	6,196	6,024	5,682	7,627	8,414	4,827
증감	-1,043	-2,608	-254	-3,998	-1,790	-5,193	-1,976	-3,078	-2,615	-588
평균	-104.3	-260.8	-25.4	-399.8	-179	-519.3	-197.6	-307.8	-261.5	-58.8
증감률	-22.1%	-22.5%	-3.3%	-18.8%	-22.4%	-46.3%	-25.8%	-28.8%	-23.7%	-10.9%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인이 등록된 충청지역은 2014년 99,203명의 교인 수가 2024년 현재 23,143명이 줄어든 76,060명으로 보고 되었다. 이는 2014년 대비 전체 교인의 23.3%p가 줄어든 것이다.

충청지역의 각 지방회 교인 수 증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북지방회는 4,710명이던 2014년 교인 수가 22.1%p 감소한 3,667명이 되었고, 청주지방회는 11,582명에서 22.5%p 감소한 8,974명으로 보고되었다. 충청지방회는 전체 10개 충청지역 중 교인 수 감소율이 가장 낮은 3.3%p를 기록했는데, 이는 254명으로 2014년 7,668명이던 충청지방회 교인 수는 2024년 7,4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분할된 창원지방회를 제외한 55개 지방회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대전지역에 위치한 대전동지방회와 대전서지방회 대전중앙지방회는 2014년도 교인 수를 각각 11,217명, 7,658명, 10,705명으로 보고하였는데, 10년간 대전동지방회는 46.3%p, 대전서지방회는 25.8%p, 대전중앙지방회는 28.8%p가 줄어 2024년 현재 각각 6,024명, 5,682명, 7,6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방회의 교인 수는 2014년 11,029명에서 2024년 8,414명으로

23.7%p에 해당하는 1,582명이 감소하였고, 세종공주지방회도 2014년 5,415명에서 588명, 109%p 감소한 4,827명을 2024년도 세례교인으로 보고하였다.

6) 호남지역 교인 수 변화

2014년 호남지역 전체 교인 수는 78,510명이었다. 2024년에 보고한 교인 수는 44,483명으로 34,027명, 전체 교인 수의 43.3%가 감소하여 전체 8개 광역지역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다.

<표 18> 호남지역 교인 수 변화표

	전 북	전 주	전북광주	군 산	전남동	전남서	광 주	전 남	전남광주	광주동
'14	9,510	26,512	6,435	9,947	5,977	5,471	4,884	3,536	2,428	3,810
'15	8,551	19,057	5,854	9,356	5,360	5,157	3,269	3,001	2,116	2,986
'16	7,600	18,121	5,062	9,232	4,940	4,366	3,215	2,651	1,814	2,938
'17	7,601	18,301	5,348	8,777	4,748	4,302	2,762	2,839	1,872	2,736
'18	7,063	18,648	5,261	7,980	4,732	4,476	2,744	2,642	1,621	2,863
'19	7,055	18,644	5,040	7,799	4,520	4,378	2,685	2,623	1,609	2,705
'20	6,552	17,624	4,585	7,201	4,403	3,842	2,461	2,422	1,515	2,559
'21	6,400	15,455	4,303	7,002	4,281	4,037	2,290	2,342	1,546	2,447
'22	5,905	13,400	4,266	7,196	3,936	4,191	2,275	2,242	1,427	2,507
'23	6,552	13,488	4,185	7,052	3,828	3,940	2,185	2,024	1,601	2,266
'24	6,245	11,609	3,964	7,129	3,732	3,981	2,007	2,005	1,564	2,247
증감	-3,265	-14,903	-2,471	-2,818	-2,245	-1,490	-2,877	-1,531	-864	-1,563
평균	-326.5	-1,490.3	-247.1	-281.8	-224.5	-149	-287.7	-153.1	-86.4	-156.3
증감폭	-34.3%	-56.2%	-38.4%	-28.3%	-37.6%	-27.2%	-58.9%	-43.3%	-35.6%	-41.0%

전북지방회가 보고한 2014년 교인 수는 9,510명이었으며, 2024년에는 34.3%p가 줄어든 6,245명을 보고하였다. 전북지방회는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59명이, 2016년에는 951명이 줄었는데 역시나 상회비 납부 구조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지방회인 전주지방회는 2014년 26,512명이던 교인이 2024년 14,908명이 줄어든 11,609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56.2%p가 감소한 것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7,455명이 감소하여 28%의 교인이 줄어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총회비 세입구조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2016년에는 936명이 추가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북중앙지방회의 2014년 교인 수는 6,435명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247명 정도 감소하여 2024년 현재 3,964명, 3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947명이던 군산지방회의 2014년 교인 수도 2,818명, 28.3% 감소하여 2024년 현재 7,129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서지방회는 각각 2014년 5,977명, 5,471명이던 교인 수가 37.6%p와 27.2%p씩 감소하여 2024년 현재 3,732명과 3,981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남중앙지방회도 2,428명이던 교인 수가 1,564명으로 35.6% 감소하였다.

광주지방회와 광주동지방회는 호남지역 지방회 중 감소율 1위와 4위를 차지하였는데, 2024년 현재 광주지방회 교인 수는 2,007명으로 2014년 대비 58.9%p가 감소하였으나 광주동지방회는 3,810명에서 2,247명으로 41.0%가 줄어들었다.

호남지역 가장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전남지방회는 2014년 3,536명이던 교인 수가 2024년 현재 2,005명으로 43.3%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 영남지역 교인 수 변화

영남지역의 2024년 전체 교인 수는 40,283명으로, 지난 2014년 보고한 56,333명에서 16,05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28.5%p가 감소한 것이다.

경북지방회는 2014년 7,940명에서 2024년 6,763명으로 14.8%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대구지방회는 4,127명에서 2,875명으로 30.3%가 줄어들었다. 경북서지방회는 5,877명에서 4,956명으로 15.7%가 줄었는데 2024년에 분할된 창원중앙지방회를 제외한 영남지역 8개 지방회 중 가장 적게 줄어든 것이다.

부산동지방회와 부산서지방회는 각각 2014년 5,034명과 10,196명에서 2024년 2,767명, 7,034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45.0%p, 31.0%p씩 감소한 것이다. 2014년 경남지방회의 교인 수는 11,284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7,544명으로 33.1%가 줄었다.

2024년에 창원중앙지방회가 분지방한 경남서지방회의 2014년 교인 수는 7,720명이었다. 2024년에 경남서지방회는 4,139명, 창원중앙지방회는 1,557명을 교인 수로 보고하여 두 지방회의 합산 교인 수는 10년 전에 비해 2,024명,

26.2%p가 줄어든 것이다. 울산지방회는 2014년의 교인 수 4,155명에서 1,507명, 36.3%p가 감소한 2,648명을 2024년도에 보고하였다.

<표 19> 영남지역 교인 수 변화표

	경 북	대 구	경 북 서	부 산 동	부 산 서	경 남	경 남 서	창원중앙	울 산
'14	7,940	4,127	5,877	5,034	10,196	11,284	7,720		4,155
'15	8,029	3,787	6,056	4,464	9,139	11,209	7,172		3,726
'16	8,048	3,738	5,845	4,149	8,711	10,922	6,758		3,965
'17	8,653	3,612	5,977	4,092	8,553	11,042	6,614		3,840
'18	8,700	3,270	6,101	3,598	8,176	10,898	6,359		3,934
'19	8,490	3,344	5,894	3,503	8,242	10,167	6,005		3,391
'20	7,974	3,298	5,412	3,116	7,656	9,969	5,864		3,409
'21	8,009	3,101	5,338	3,134	7,449	8,605	5,763		2,908
'22	6,218	2,952	5,155	2,891	7,455	8,841	5,691		2,492
'23	6,296	2,987	4,846	2,806	7,147	8,433	5,530		2,664
'24	6,763	2,875	4,956	2,767	7,034	7,544	4,139	1,557	2,648
증감	-1,177	-1,252	-921	-2,267	-3,162	-3,740	-3,581	-	-1,507
평균	-117.7	-125.2	-92.1	-226.7	-316.2	-374	-358.1	-	-150.7
증감률	-14.8%	-30.3%	-15.7%	-45.0%	-31.0%	-33.1%	-46.4%	-	-36.3%

8) 제주지역 교인 수 변화

제주직할지방회의 2014년 교인 수는 2,352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22.2%가 줄어든 1,829명명으로 연평균 52명씩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최근 3개년간 광역지역별 교인 수 변화

최근 3년간 지역별 교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 20>과 같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지역의 교인 수는 130,307명에서 133,570명으로 3,448명이 늘어나 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지역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계속 교인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 2,328명, 2023년에는 1,120명의 교인이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년 대비 857명의 교인이 줄어 상승세가 멈추었다.

인천지역의 2022년도 교인 수는 36,176명이었는데, 매년 65명씩 줄어든 것

으로 나타났다. 2023년 경기지역 교인 수는 2022년 31,846명에서 504명이 늘어난 32,35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다시 133명이 줄어 3년간 37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최근 3년간 광역지역별 교인 수 변화표

	2022	2023	2024	'23-'22	'24-'23	'24-'22	증감율	평균
서울지역	133,307	134,427	133,570	1,120	-857	263	0.2%	87.7
인천지역	36,176	36,084	35,981	-92	-103	-195	-0.5%	-65.0
경기지역	31,846	32,350	32,217	504	-133	371	1.2%	123.7
강원지역	16,002	16,022	15,775	20	-247	-227	-1.4%	-75.7
충청지역	78,506	77,349	76,060	-1,157	-1,289	-2,446	-3.1%	-815.3
호남지역	47,345	47,121	44,483	-224	-2,638	-2,862	-6.0%	-954.0
영남지역	41,695	40,709	40,283	-986	-426	-1,412	-3.4%	-470.7
제 주	1,791	1,665	1,829	-126	164	38	2.1%	12.7
합 계	386,668	385,727	380,198	-941	-5,529	-6,470	-1.7%	-2,156.7

강원지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27명이 줄었으며, 충청지역은 2,446명이나 감소하였다. 호남지역 교인수는 지난 3년간 2,862명이, 영남지역은 1,412명이 줄어들었는데, 제주지역은 38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다. 세례교인 수 변화

교단 헌법 제35조 1항은 '세례교인으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19세 이상 된 자'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례교인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점에서 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세례교인은 총회비의 기준점 중 하나로 총회의 세입을 원활히 하여 더욱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새신자로 들어온 교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향후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기본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교인 수의 확보는 교회의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2014년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 수의 변화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지역별 세례교인수 변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4	114,305	38,060	36,846	15,181	63,031	49,679	36,731	1,214	355,047
'15	106,850	32,197	25,865	13,851	60,872	44,117	34,849	1,313	319,914
'16	99,459	28,274	24,715	13,476	59,669	41,534	33,836	1,263	302,226
'17	97,749	30,088	24,144	13,442	58,897	41,852	33,615	1,261	301,048
'18	96,036	28,967	23,951	13,221	58,575	40,952	33,208	1,268	296,178
'19	94,484	28,267	24,338	13,338	58,057	41,029	32,170	1,272	292,955
'20	91,901	26,603	22,629	12,981	56,365	39,767	31,909	1,206	283,361
'21	92,103	27,328	22,463	12,713	55,425	39,294	31,616	1,230	282,172
'22	94,052	26,781	23,394	12,722	55,576	36,215	30,875	1,246	280,861
'23	93,966	26,957	23,779	12,637	54,946	36,263	30,299	1,200	280,047
'24	93,307	27,019	23,546	12,535	54,842	34,162	30,776	1,270	277,457
증감	-20,998	-11,041	-13,300	-2,646	-8,189	-15,517	-5,955	56	-77,590
평균	-2,099.8	-1,104.1	-1,330	-264.6	-818.9	-1,551.7	-595.5	5.6	-7,759
증감폭	-18.4%	-29.0%	-36.1%	-17.4%	-13.0%	-31.2%	-16.2%	4.6%	-21.9%

<그래프 3> 광역지역별 세례교인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2014년 현재 355,047명인 우리 교단의 세례교인 수는 2024년 277,457명으로 보고되어 동기간 23,59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인 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제108년차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의 영향으로 하수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5,133명과 17,688명이 줄어든 것이다.

1)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는 2014년 114,305명에서 18.4%p인 20,998명이 줄어든 93,307명으로 보고되었는데 10개 지방회별 세례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 서울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서울중앙	서울동	서울서	서울남	서울북	서울강서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제일	서울
'14	21,806	7,688	22,389	21,790	11,622	12,810	10,973	5,227		
'15	20,264	6,865	21,413	21,501	10,206	11,576	10,236	4,789		
'16	20,200	4,648	20,474	20,192	9,356	10,280	9,461	4,848		
'17	13,361	4,550	20,406	19,699	9,205	10,025	9,015	4,516	6,972	
'18	13,588	4,572	19,234	19,239	9,203	10,167	7,702	4,644	7,687	
'19	13,365	4,724	19,589	18,707	8,468	9,875	7,642	4,505	7,609	
'20	13,409	4,494	19,164	18,056	7,735	9,647	7,285	4,420	7,691	
'21	13,546	4,437	18,851	18,041	8,421	9,804	7,688	4,412	6,903	
'22	14,092	4,425	19,536	18,120	4,405	9,994	7,616	4,515	6,102	5,247
'23	14,248	4,326	19,809	18,131	4,404	9,965	7,644	4,156	6,006	5,277
'24	14,503	4,167	20,215	18,355	4,411	9,696	7,679	4,011	5,779	4,491
증감	-7,303 (1,142)	-3,521	-2,174	-3,435	-7,211 (6)	-3,114	-3,294	-1,216	-1,193	-756
평균	-730.3 (496)	-352.1	-217.4	-343.5	-721.1 (12.5)	-311.4	-329.4	-121.6	-170.4 28571	-378
증감률	-33.5% (8.5%)	-45.8%	-9.7%	-15.8%	-62.0% (0.1%)	-24.3%	-30.0%	-23.3%	-24.8%	-14.4%

서울중앙지방회는 2014년 21,806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4년 7,303명이 줄어 14,503명으로 보고하였다. 2017년 서울제일지방회와 나뉘며 6,972명의 세례교인 빠져나갔는데, 당시 13,361명이던 세례교인 수와 비교하면 1,142명이 늘어 8.5%p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2년과 2023년 각각 202명

과 1,949명이 늘어난 세례교인 수는 지난해 소폭이지만 감소하였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서울동지방회는 2014년에 보고한 7,688명의 세례교인 수의 45.8%p가 줄어 4,167명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서울지역 10개 지방회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인데, 2015년 823명, 2016년 2,217명이 준 것으로 보고하여 제108년차 교단 총회의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서지방회의 2014년 세례교인 수는 22,389명으로 서울지역 10개 지방회 중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세례교인 수를 보고한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남지방회는 각각 583명, 599명의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서울서지방회의 세례교인 수는 9.7%p 감소한 20,215명인데 서울중앙지방회와는 5,712명, 서울남지방회와는 1,860명으로 그 차이를 벌려, 교단 내에서 세례교인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보고된 세례교인 수가 2만 명이 넘는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가 유일하며, 1만 명이 넘는 지방회는 14,503명의 서울중앙지방회와 18,355명의 서울남지방회 그리고 11,087명의 충서지방회로, 2014년 세례교인 수가 2만 명 이상인 지방회가 3개(서울중앙, 서울서, 서울남)이고, 1만 명 이상인 지방회는 6개(서울북, 서울강서, 서울강남, 강원서, 충서, 전주)였던 것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서울남지방회는 2014년 21,790명의 세례교인 수가 15.8%p 줄어 2024년 18,355명으로 보고되었고, 서울북지방회는 11,622명이던 2014년 세례교인 수가 2024년에는 4,411명으로 62.0%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2022년 서울지방회와 나뉜 영향이 큰 것으로 2022년 당시 서울북지방회 세례교인 수는 4,405명이고 서울지방회 세례교인 수는 5,247명으로 두 지방회의 합은 2014년 서울북지방회 세례교인 수에 비해 1,970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었다. 2022년 이후 서울북지방회는 6명의 세례교인이 늘었으며, 서울지방회는 756명이 줄어, 14.4%p의 감소율을 보였다.

서울강서지방회는 12,810명이던 2014년에 비해 24.3%p 줄어든 9,696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였는데 역시나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234명과 1,296명이 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남지방회는 2014년에 10,973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4년 3,294명이 줄어든 7,679명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2014년에 비해 30.0%p가 감소한 것이다. 서울강동지방회도 2014년에 비해 23.3%p가 줄어든 4,011명을, 서울

제일지방회는 2017년에 비해 24.8%p가 감소한 5,779명으로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다.

2) 인천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지난해 인천지역 세례교인 수는 27,019명으로 2014년에 비해 29.0%p인 11,041명이 감소하였다.

<표 23> 인천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인 천 동	인 천 서	인 천 남	인천중앙	부 천	경 인	부 홍
'14	7,825	9,525	7,688	5,214	4,192	3,616	
'15	7,605	9,212	7,011	3,353	3,975	1,041	
'16	6,962	8,676	6,885	2,806	1,739	1,206	
'17	6,852	8,414	6,450	2,333	1,619	2,005	2,415
'18	7,634	8,018	6,279	2,085	1,567	1,207	2,177
'19	6,819	8,023	6,299	2,032	1,444	1,231	2,419
'20	6,485	7,074	6,044	2,051	1,416	1,213	2,320
'21	6,883	7,279	6,129	2,070	1,460	1,227	2,280
'22	6,820	7,016	6,006	2,001	1,555	1,218	2,165
'23	6,928	7,032	5,835	2,088	1,727	1,248	2,099
'24	6,940	6,867	5,623	2,331	2,001	1,227	2,030
증감	-885	-2,658	-2,065	-2,883	-2,191	-2,389	-385
평균	-88.5	-265.8	-206.5	-288.3	-219.1	-238.9	-55
증감폭	-11.3%	-27.9%	-26.9%	-55.3%	-52.3%	-66.1%	-6.8%

인천동지방회는 7,825명이 보고된 2014년 보다 11.3%p가 줄어 지난해 6,94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에 인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천 서지방회도 9,252명, 27.9%p나 줄어들어 인천동지방회에 수위를 내주게 되었다. 2014년 7,688명이던 인천남지방회는 26.9%p에 해당하는 2,065명이 줄어든 5,623명으로 2024년도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으며, 인천중앙지방회는 2014년도에 비해 55.3%p가 줄어든 2,331명을 보고하였는데, 2015년에 1,861명의 세례교인이 감소하여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천지방회는 2014년 4,192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였으나 지난해는 2,001명만을 보고하여 52.3%p나 감소하였다. 경인지방회도 3,616명이던 2014년도 세례교인 수가 2024년에는 1,227명으로 줄어, 세례교인의 66.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감소율이 무려 71.2%p에 달하는 것은 상회비 부과 기준의 변화로 인한 후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인지방회는 2015년도에 세례교인 수를 1,041명으로 보고한 이후 9년 동안에는 186명이 늘었다. 2017년 분할된 부흥지방회는 2,415명의 세례교인이 7년 동안 385명이 줄어 2024년에는 2,030명으로 보고하였다.

3) 경기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표 24> 경기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경 기 동	경기중앙	경 기 남	경 기	경 기 서	경 서
'14	6,170	5,217	6,394	9,269	6,089	3,707
'15	4,804	2,890	6,333	5,308	5,268	1,262
'16	4,407	2,805	5,947	5,029	5,260	1,267
'17	4,331	2,801	5,694	5,248	4,786	1,284
'18	4,058	2,844	5,742	4,850	5,246	1,211
'19	4,106	2,850	5,975	4,956	5,241	1,210
'20	3,816	2,630	5,285	4,493	5,203	1,202
'21	3,881	2,733	5,201	4,568	4,564	1,516
'22	4,024	2,831	5,384	4,558	4,573	2,024
'23	3,823	2,866	5,498	4,582	4,728	2,282
'24	3,885	2,866	5,370	4,486	4,760	2,179
증감	-2,285	-2,351	-1,024	-4,783	-1,329	-1,528
평균	-228.5	-235.1	-102.4	-478.3	-132.9	-152.8
증감폭	-37.0%	-45.1%	-16.0%	-51.6%	-21.8%	-41.2%

경기지역 2014년도 세례교인은 모두 36,846명이었으나, 10년 후인 2024년 현재 23,546명으로 전체 세례교인의 36.1%p인 13,300명이 줄어 전체 8개 광역지역 중 가장 많은 세례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동지방회는 2014년 6,170명이던 세례교인이 지난해 3,885명으로 37.0%p가 감소하였고, 경기중앙지방회는 5,217명에서 2,866명으로, 경기남지

방회도 6,394명이 5,370명으로 각각 45.1%p와 16.0%p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 당시 경기지역에서 세례교인 수가 가장 많던 경기지방회는 51.6%p 줄어든 4,486명을 보고하였고, 경기서지방회와 경서지방회도 6,089명, 3,707명에서 각각 1,329명과 1,528명이 줄어 2024년 현재 4,760명, 2,179명으로 보고하였다.

‘총회비 세입구조 변경 결의’의 영향으로 2015년도에 경기동지방회의 세례교인 수가 1,366명, 전체 세례교인의 22.1%가 감소했으며, 경기중앙지방회도 2,327명, 44.6%p가 경기지방회는 3,961명, 42.7%가 감소하여 전체 세례교인 수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4) 강원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강원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표 25>와 같다. 2014년 보고된 강원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15,181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2,646명이 줄어든 12,637명으로 전체 세례교인 수의 17.4%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동지방회의 2014년 세례교인 수는 4,764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20.1%p가 줄어든 3,807명으로 보고되었다. 강원서지방회는 2014년 10,417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4년 48.5%p가 줄어 5,360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강원지방회가 나뉘던 시점에 강원서지방회는 5,757명, 강원지방회가 3,283명으로 9,043명이던 2016년에 비해 단 3명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후 강원서지방회는 397명, 6.9%가 줄어든 것으로 다른 지방회에 비하면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원지방회는 2017년 분할 이후 7년간 85명의 세례교인 수가 늘어, 2.6%p의 성장세를 보였다.

<표 25> 강원지역 교인수 변화표

	강 원 동	강 원 서	강 원
'14	4,764	10,417	
'15	4,478	9,373	
'16	4,433	9,043	
'17	4,402	5,757	3,283
'18	4,409	5,534	3,278
'19	4,403	5,698	3,237
'20	4,205	5,538	3,238
'21	3,991	5,493	3,229
'22	4,029	5,345	3,348
'23	3,894	5,330	3,413
'24	3,807	5,360	3,368
증 감	-957	-5,057 (-397)	85
평 균	-95.7	-505.7 (-56.7)	12.1
증감폭	-20.1%	-48.5% (-6.9%)	2.6%

5) 충청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충청지역의 세례교인 수 변화는 아래 <표 26>과 같다. 서울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세례교인 수가 많은 충청지역의 2014년도 세례교인 수는 63,031명에서 2024년 현재 13.0%에 해당하는 8,189명이 줄어든 54,842명으로 2015년에 2,159명이, 2020년에 1,692명이 줄어,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와 ‘코로나19’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26> 충청지역 교인수 변화표

	충 북	충 주	충 청	충 서	충청중앙	대전동	대전서	대전중앙	충 남	세종주
'14	3,229	6,963	5,159	10,448	6,012	7,885	4,965	6,890	7,577	3,903
'15	3,217	6,928	4,937	10,905	5,744	7,234	4,627	6,008	7,361	3,911
'16	2,957	7,093	4,484	10,935	5,644	6,864	4,645	5,541	7,324	4,182
'17	2,942	7,281	4,482	10,721	5,280	6,586	4,554	5,655	7,221	4,175
'18	3,017	7,134	4,652	10,775	5,231	6,130	4,468	5,629	7,425	4,114
'19	2,873	7,200	4,643	10,900	5,372	5,637	4,525	5,469	7,200	4,238
'20	2,821	6,956	4,416	10,899	4,957	5,228	4,407	5,379	7,228	4,074
'21	2,822	6,843	4,402	10,804	4,838	4,996	4,402	5,343	6,961	4,014
'22	2,849	6,827	4,663	10,780	4,899	4,991	4,507	5,310	6,921	3,829
'23	2,856	6,387	4,653	10,869	4,814	4,957	4,408	5,348	6,877	3,777
'24	2,835	6,215	5,028	11,087	4,844	4,834	4,410	5,014	6,809	3,766
증감	-394	-748	-131	639	-1168	-3,051	-555	-1,876	-768	-137
평균	-39.4	-74.8	-13.1	63.9	-116.8	-305.1	-55.5	-187.6	-76.8	-13.7
증감폭	-12.2%	-10.7%	-2.5%	6.1%	-19.4%	-38.7%	-11.2%	-27.2%	-10.1%	-3.5%

충북지방회의 세례교인 수는 2014년 3,229명에서 2024년 2,835명으로 12.2%p가 줄었고, 충주지방회는 6,963명에서 6,215명으로 10.7%p가, 충청지방회는 5,159명에서 5,028명으로 2.5%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충청지역 지방회 중 유일하게 세례교인 수의 증가를 보고한 것은 충서지방회인데 2014년 10,488명에서 6.1% 늘어난 11,087명을 지난해 세례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충서중앙지방회는 2014년 6,012명에서 2024년 4,844명으로 19.4%p의 세례교인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전지역 3개 지방회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는데, 대전동지방회는 2014년도에 비해 세례교인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여 38.7%가 줄어든 4,834명으로, 11.2%p가 줄어든 대전서지방회는 4,410명으로, 27.2%p가 줄어든 대전중앙지방회는 5,014명을 2024년 세례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2014년 7,577명의 세례교인 수를 보고한 충남지방회는 2024년 현재 10.1%가 감소한 6,809명이 되었으며, 세종공주지방회는 3,933명에서 63명, 3.5%p가 줄어든 3,766명의 세례교인을 보고하였다.

6) 호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표 27> 호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전 북	전 주	전북중앙	군 산	전남동	전남서	광 주	전 남	전남중앙	광주동
'14	6,136	14,162	4,557	6,919	4,405	3,802	2,920	2,362	1,507	2,909
'15	5,511	13,844	4,062	5,807	3,890	3,603	2,002	2,058	1,331	2,009
'16	4,853	13,761	3,630	5,579	3,611	3,049	2,003	1,720	1,296	2,032
'17	5,111	14,351	3,621	5,298	3,607	3,132	1,520	2,007	1,202	2,003
'18	4,938	14,084	3,606	4,910	3,603	3,196	1,502	1,767	1,202	2,144
'19	4,919	14,520	3,259	4,994	3,603	3,105	1,621	1,746	1,202	2,060
'20	4,804	13,989	3,147	4,632	3,623	3,010	1,553	1,780	1,204	2,025
'21	4,790	13,336	3,182	4,721	3,621	3,105	1,542	1,775	1,202	2,020
'22	4,438	10,828	3,147	4,763	3,296	3,151	1,517	1,755	1,203	2,117
'23	4,909	10,826	3,165	4,861	3,263	3,046	1,528	1,603	1,228	1,834
'24	4,758	9,215	3,061	4,886	3,199	3,025	1,390	1,592	1,205	1,831
증감	-1,378	-4,947	-1,496	-2,033	-1,206	-777	-1,530	-770	-302	-1,078
평균	-137.8	-494.7	-149.6	-203.3	-120.6	-77.7	-153	-77	-30.2	-107.8
증감률	-22.5%	-34.9%	-32.8%	-29.4%	-27.4%	-20.4%	-52.4%	-32.6%	-20.0%	-37.1%

호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2014년 49,679명에서 2024년 34,162명으로 전체 세례교인수의 31.2%인 15,517명이 줄어들었다. 호남지역 각 지방회의 세례교인 변동은 <표 26>과 같다. 호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2015년에 무려 5,562명이나 줄었고, 2016년에도 2,583명이 줄어 이태에만 8,145명이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에 따라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회의 2014년 세례교인 수는 6,136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22.5p

가 감소한 4,758명으로 보고되었고, 전주지방회는 2014년 14,162명에서 2024년 9,215명으로 전체 세례교인의 34.9%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도에는 전년도 세례교인 수의 18.8%인 2,508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어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전북중앙지방회는 4,557명이던 2014년도 세례교인 수의 32.8%p가 감소하여 3,061명으로 2024년도 보고를 하였으며, 군산지방회도 6,919명에서 29.4%p가 감소한 4,886명을 보고하였다. 전남동지방회와 전남서지방회의 2014년도 세례교인 수는 각각 4,405명과 3,802명인데 2024년에는 3,199명과 3,025명을 보고하여 27.4%p와 20.4%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회와 광주동지방회는 호남지역 10개지방회 중 세례교인 감소 숫자가 가장 높은 지방회인데 광주지방회는 52.4%에 해당하는 1,530명의 세례교인이 줄었고, 광주동지방회는 37.1%에 해당하는 1,078명이 줄어 각각 2024년도 현재 1,592명과 1,831명을 세례교인 수로 보고하였다.

전남지방회는 2024년도 세례교인 수를 1,592명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에 비해 32.6%p 줄어든 것이고, 전남중앙지방회 역시 2014년도의 1,507명에 비해 20.0%p 감소한 1,205명을 세례교인으로 보고하였다.

7) 영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2014년도 영남지역의 세례교인 수는 총 36,731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는 30,77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세례교인의 16.2%인 5,955명이 줄어든 것으로 연평균 596명씩 감소하고 있다. 영남지역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882명, 1,013명의 세례교인이 감소하여 ‘총회비 세입 구조 변경 결의’가 가장 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북지방회는 2014년 4,488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024년 4,801명으로 늘어 2024년에 분할된 창원중앙지방회를 제외한 영남지역 8개 지방회 중 유일하게 7.0%p 성장한 지방회이다. 대구지방회는 2014년 2,909명이던 세례교인 수가 22.1%p 줄어든 2,265명으로 지난해 보고하였으며 경북서지방회 또한 2014년 4,484명의 세례교인 수가 9.7%p 감소하여 2024년 현재 4,0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부산동지방회와 부산서지방회의 세례교인 수는 각각 3,739명과 6,800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37.8%p와 20.0%p 감소한 2,324명, 5,440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28> 영남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표

	경 북	대 구	경 북 서	부 산 동	부 산 서	경 남	경 남 서	창원중앙	울 산
'14	4,488	2,909	4,484	3,739	6,800	6,488	4,936		2,887
'15	4,484	2,697	4,348	3,149	6,434	6,433	4,444		2,860
'16	4,566	2,640	4,290	3,052	6,015	6,271	4,197		2,805
'17	4,779	2,646	4,247	2,952	5,846	6,264	4,080		2,801
'18	4,663	2,462	4,348	2,753	5,771	6,333	4,067		2,811
'19	4,431	2,505	4,269	2,679	5,769	6,039	4,084		2,394
'20	4,433	2,454	4,209	2,529	5,697	6,013	4,138		2,436
'21	4,443	2,421	4,167	2,577	5,715	6,119	4,041		2,133
'22	4,404	2,383	4,081	2,412	5,671	6,044	3,948		1,932
'23	4,432	2,374	4,030	2,331	5,462	5,778	3,802		2,090
'24	4,801	2,265	4,050	2,324	5,440	5,563	2,974	1,262	2,097
증감	313	-644	-434	-1,415	-1,360	-925	-1,962	-	-790
평균	31.3	-64.4	-43.4	-141.5	-136	-92.5	-196.2	-	-79
증감폭	7.0%	-22.1%	-9.7%	-37.8%	-20.0%	-14.3%	-39.7%	-	-27.4%

경남지방회는 2014년 6,488명의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는데 10년간 평균 92.5명씩 감소하여 2024년 현재 5,56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서지방회는 2014년 4,936명의 세례교인이 2024년 현재 2,974명으로 창원중앙지방회가 보고한 1,262명과 합산하더라도 14.1%p, 700명이 지난 10년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회는 지난해 2,097명의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2014년 2,887명에 비해 27.4%p가 줄어든 것이다.

8) 제주지역 세례교인 수 변화

제주직할지방회는 2014년도 세례교인 수 1,214명에서 2024년 현재 전체 세례교인 수의 5.6%가 늘어난 1,270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세례교인의 감소세는 대부분의 지방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총회비납부 구조 변경과 관련한 교인 명부 정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

개도 감소 추세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라. 새신자 수 변화

교회의 본질은 전도이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하고 새신자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2000년대 이후 탈종교화 시대를 지나며 직접전도 환경이 지극히 나빠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며 진영싸움에 앞장섬으로 교회의 대사회 영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정 세대의 전도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새신자 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화였다.

<표 29> 연도별 지역별 새신자 수 변화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4	32,239	7,125	5,998	2,051	15,537	14,336	9,109	352	86,747
'15	31,915	6,610	5,623	1,739	14,320	7,904	8,751	183	77,045
'16	32,386	4,002	5,313	1,636	14,738	6,837	8,586	129	73,627
'17	28,130	5,727	4,841	1,666	13,599	6,359	8,569	122	69,013
'18	23,696	4,575	4,384	1,325	12,704	6,440	8,170	178	61,472
'19	23,220	4,256	3,802	1,252	13,763	6,150	7,507	179	60,129
'20	19,155	3,214	3,967	800	8,285	4,877	6,077	87	46,462
'21	19,749	3,066	3,423	1,080	10,178	3,707	4,945	63	46,211
'22	20,594	3,120	3,201	1,021	10,324	4,491	3,544	78	46,373
'23	20,656	3,276	3,173	1,029	10,344	4,498	3,702	79	46,757
'24	21,446	3,242	3,239	1,058	9,061	3,821	3,221	143	45,231
증 감	-10,793	-3,883	-2,759	-993	-6,476	-10,515	-5,888	-209	-41,516
평 균	-1,079.3	-388.3	-275.9	-99.3	-647.6	-1,051.5	-588.8	-20.9	-4,151.6
증 감 폭	-33.5%	-54.5%	-46.0%	-48.4%	-41.7%	-73.3%	-64.6%	-59.4%	-47.9%

2014년 한해 우리 교단이 전도한 새신자 수는 86,747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45,231명으로 47.9%p 감소한 45,231명이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무려 22.8%가 줄어 13,667명만 전도가 되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여

파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종식 이후 새신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117년차 총회 주요사업으로 시작한 ‘성결전도왕’ 사업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30> 연도별 지역별 새신자 수 증감표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5-'14	-324	-515	-375	-312	-1,217	-6,432	-358	-169	-9,702
'16-'15	471	-2,608	-310	-103	418	-1,067	-165	-54	-3,418
'17-'16	-4,256	1,725	-472	30	-1,139	-478	-17	-7	-4,614
'18-'17	-4,434	-1,152	-457	-341	-895	81	-399	56	-7,541
'19-'18	-476	-319	-582	-73	1,059	-290	-663	1	-1,343
'20-'19	-4,065	-1,042	165	-452	-5,478	-1,273	-1,430	-92	-13,667
'21-'20	594	-148	-544	280	1,893	-1,170	-1,132	-24	-251
'22-'21	845	54	-222	-59	146	784	-1,401	15	162
'23-'22	62	156	-28	8	20	7	158	1	384
'24-'23	790	-34	66	29	-1,283	-677	-481	64	-1,526

<그래프 4> 광역지역별 새신자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마. 교회학교 변화

1) 교회학교 학생 수 변화

지교회가 지방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교세통계표>에서 교회학교에 관한 보고 형식이 2023년도부터 변화가 되었다. 기존의 교세통계표에 입력을 하는 것 외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로 세분화하고 각 부서를 남녀와 학생교사를 나누어 보고하게 한 것이다. 이는 각 나이대마다 특성이 다른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구축할 기회이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교회와 지방회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입력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전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2024년도 교회학교 학생 수 통계표에도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내용을 입력한 것이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우선 연도별 교회학교 학생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표 31> 연도별 지역별 교회학교 학생수 변화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4	29,271	13,676	10,898	4,306	20,735	14,309	10,825	600	104,620
'15	27,528	9,857	9,402	3,600	19,771	12,418	10,425	531	93,532
'16	24,817	8,572	8,906	3,663	17,881	11,568	9,714	540	85,661
'17	25,204	8,317	7,833	3,520	17,745	11,075	10,199	499	84,392
'18	24,751	7,822	7,908	3,040	17,271	10,638	9,658	557	81,645
'19	22,866	7,919	7,542	3,313	16,387	9,879	9,359	579	77,844
'20	20,613	6,971	6,043	2,791	15,286	8,520	8,712	422	69,358
'21	19,127	6,750	5,355	2,422	13,640	7,102	7,746	439	62,581
'22	18,661	6,275	5,251	2,259	12,606	6,639	7,276	467	59,434
'23	19,795	5,851	5,398	2,356	12,059	6,360	6,718	386	58,923
'24	18,817	5,720	5,432	2,182	12,157	6,500	6,286	416	57,510
증감	-10,454	-7,956	-5,466	-2,124	-8,578	-7,809	-4,539	-184	-47,110
평균	-1,045.4	-795.6	-546.6	-212.4	-857.8	-780.9	-453.9	-18.4	-4,711.0
증폭	-35.7%	-58.2%	-50.2%	-49.3%	-41.4%	-54.6%	-41.9%	-30.7%	-45.0%

2014년 우리 교단 교회학교 숫자는 총 104,620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45.0%가 감소한 57,510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4,711명씩, 총 47,110명이 줄어든 것이다. 가장 많은 숫자가 줄어든 해는 2015년으로 전년 대비 11,088명이 줄었으며, 2020년과 2016년, 2021년에도 각각 8,486명, 7,871명, 6,7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5> 광역지역별 새신자 수 증감 현황 및 추세표



<표 32> 연도별 광역지역별 교회학교 학생 수 증감표

	서울	경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합계
'15-'14	-1,743	-3,819	-1,496	-706	-964	-1,891	-400	-69	-11,088
'16-'15	-2,711	-1,285	-496	63	-1,890	-850	-711	9	-7,871
'17-'16	387	-255	-1,073	-143	-136	-493	485	-41	-1,269
'18-'17	-453	-495	75	-480	-474	-437	-541	58	-2,747
'19-'18	-1,885	97	-366	273	-884	-759	-299	22	-3,801
'20-'19	-2,253	-948	-1,499	-522	-1,101	-1,359	-647	-157	-8,486
'21-'20	-1,486	-221	-688	-369	-1,646	-1,418	-966	17	-6,777
'22-'21	-466	-475	-104	-163	-1,034	-463	-470	28	-3,147
'23-'22	1,134	-424	147	97	-547	-279	-558	-81	-511
'24-'23	-978	-131	34	-174	98	140	-432	30	-1,413

교회학교 학생 수는 코로나19 대유행기간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었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8,410명, 전체 학생 수의 23.6%가 이 시기에 줄어들었다.

8개 광역지역 중 가장 많은 교회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045명씩, 10,454명이 줄었으며, 충청지역이 8,578명, 인천지역이 7,956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회학교 학생수의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유초등부 학생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조사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0년과 2021년의 0세부터 14세까지 인구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2025년인 올해, 여름에 10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내년에는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33> 2010년~2021년 0~14세 인구 증감

	2010	2021	증감	증감율
0~4세	2,219,084명	1,570,409명	-648,675명	-29.2%
5~9세	2,394,663명	2,212,372명	-182,291명	-7.6%
10~14세	3,173,226명	2,304,690명	-868,536명	-27.4%
합계	7,786,973명	6,087,471명	-1,699,502명	-21.8%

위 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11년간 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는 7,786,973명에서 6,087,471명으로 21.8%인 1,699,50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는 52.1%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되었으니, 인구감소율보다 약 2.4배나 더 감소하고 있다. 다만 그 추세가 줄어드는 것은 위안 삼을 만하다.

2023년도에 새롭게 작성된 교회학교 통계는 학교를 기준으로 남녀와 학생, 교사를 구분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다. 아래와 같다. 우선 2023년도 우리 교단의 지방회별 학생 현황은 아래 <표 34>와 같다.

우선 전국 56개 지방회 중 유치부 학생이 가장 많은 지방회는 922명의 서울서지방회이고, 864명의 서울남지방회와 536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유치부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24명의 창원중앙지방회와

36명의 전남중앙지방회 그리고 39명의 전남지방회 순이다.

<표 34> 2024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학생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야간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서울중앙	536	546	520	1,602	546	436	982	3,445	285
서울동	159	153	172	484	142	149	291	634	74
서울서	922	934	1,170	3,026	1,188	845	2,033	3,716	521
서울남	864	789	794	2,447	783	398	1,181	4,577	389
서울북	146	147	177	470	154	93	247	316	82
서울강서	384	400	498	1,282	445	365	810	1,332	220
서울강남	314	223	256	793	265	735	1,000	735	121
서울강동	154	137	209	500	164	146	310	505	71
서울제일	242	305	471	1,018	382	276	658	802	170
서울	166	177	321	664	212	352	564	548	98
인천동	292	283	430	1,005	371	323	694	1,239	153
인천서	228	297	302	827	335	258	593	842	151
인천남	225	258	268	751	317	249	566	665	148
인천중앙	80	96	120	296	121	95	216	340	44
부천	103	76	104	283	80	83	163	353	39
경인	48	60	75	183	49	40	89	177	34
부흥	68	85	133	286	170	157	327	494	52
경기동	197	186	214	597	200	154	354	423	102
경기중앙	120	118	109	347	141	92	233	389	61
경기남	246	258	289	793	256	300	556	619	138
경기	131	174	237	542	209	175	384	825	89
경기서	235	263	302	800	305	240	545	606	140
경서	54	48	82	184	59	52	111	149	28
강원동	113	145	169	427	154	129	283	347	80
강원서	216	194	221	631	193	216	409	484	93
강원	111	138	162	411	123	115	238	400	70
충북	113	179	217	509	134	74	208	366	90
청주	277	293	424	994	370	234	604	854	156
충청	266	205	254	725	234	167	401	889	118
충서	320	373	416	1,109	465	283	748	812	207
충서중앙	165	197	272	634	190	207	397	371	102
대전동	154	226	234	614	201	184	385	702	114
대전서	162	167	242	571	220	195	415	731	95
대전중앙	173	262	345	780	268	206	474	533	133
충남	147	224	281	652	295	233	528	585	118
세종공주	132	170	176	478	151	216	367	462	81
전북	156	144	231	531	169	140	309	455	67
전주	202	335	465	1,002	318	293	611	1,003	190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전북중앙	100	95	138	333	111	99	210	395	52
군 산	299	275	325	899	150	223	373	643	143
전 남 동	104	135	84	323	95	65	160	20	76
전 남 서	106	139	145	390	123	148	271	247	66
광 주	85	114	147	346	78	80	158	129	69
전 남	39	55	82	176	62	54	116	206	24
전남중앙	36	68	58	162	59	80	139	85	42
광주동	59	73	106	238	60	57	117	217	39
경 북	187	198	271	656	215	214	429	933	95
대 구	85	89	90	264	99	91	190	329	48
경 북 서	121	174	175	470	163	118	281	496	84
부 산 동	51	73	62	186	101	33	134	208	44
부 산 서	214	215	278	707	232	225	457	986	114
경 남	251	295	329	875	276	230	506	611	148
경 남 서	90	118	126	334	144	144	288	229	54
창원중앙	24	30	51	105	49	44	93	138	14
울 산	89	75	110	274	73	69	142	299	40
제주직할	47	71	132	250	86	66	152	172	37
합 계	10,608	11,557	14,071	36,236	12,555	10,945	23,500	39,068	6,113

유년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 또한 서울서지방회와 서울남지방회 그리고 서울중앙지방회가 각각 934명, 789명, 546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창원중앙지방회와 경서지방회, 전남지방회가 각각 30명, 48명, 55명으로 하위권을 이루고 있다.

초등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170명의 서울서지방회이고, 794명의 서울남지방회와 520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역시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창원중앙지방회가 51명, 전남중앙지방회가 58명, 부산동지방회가 62명으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어린이교회 전체 학생 수를 보면 서울서지방회가 3,026명으로 3,000명을 넘는 유일한 지방회로 보고되었으며, 서울남지방회만이 2,447명으로 어린이교회 학생 수가 2,000명을 넘는 지방회였다.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는 지방회는 6개 지방회인데, 1,602명의 서울중앙지방회, 1,282명의 서울강서지방회, 1,109명의 충서지방회, 1,018명의 서울제일지방회와 1,005명의 인천동지방회 그리고 1,002명의 전주지방회가 학생 수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등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188명의 서울서지방회인데 유일한 1,000명대 지방회였으며, 역시나 783명의 서울남지방회와 546명의 서울중앙

지방회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등부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49명의 경인지방회와 창원중앙지방회로 보고되었다.

고등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 또한 845명의 서울서지방회였다. 반면에 서울강남지방회가 735명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지역인 강남 8학군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고등부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40명의 경인지방회이다.

청소년교회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2,033명의 서울서지방회로 유일하게 2,000명을 넘긴 지방회이다. 1,000명이 넘는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와 서울강남지방회가 각각 1,181명과 1,000명으로 상위권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청소년교회 학생 수가 적은 지방회는 89명의 경인지방회와 93명의 창원중앙지방회였다.

청년 숫자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로 4,577명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들이 주로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도 각각 3,716명과 3,445명으로 보고되었는데, 대학가가 주로 위치한다는 점과 세 지방회 모두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회에 중에서는 1,239명의 인천동지방회와 1,003명의 전주지방회가 있는데, 대체로 대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년 숫자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전남동지방회로 20명이 보고되었으며, 전남중앙지방회가 85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회학교 부서 숫자는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이다. 즉 A라는 교회가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운영하고 있다면, 6개 부서가 보고되는 것이고, B라는 교회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만 운영한다면 3개 부서를 보고하게 된다. 교회학교 부서를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전담 교역자의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

전국 56개 지방회 중 가장 많은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521개 부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4년 서울서지방회의 교회수는 107개이다. 따라서 서울서지방회는 교회당 평균 4.8개의 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교단 교육국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단위이다. 반면 지방회 내에 단지 14개의 부서만

운영되고 있는 창원중앙지회의 경우 23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교회당 평균 0.7개의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교회에 교육부서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대비 광역지역의 어린이교회의 변화는 <표 35>와 같다.

<표 35> 2023년-2024년도 광역지역별 어린이교회 학생 수 변화표

구분	유치부			유년부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3,810	3,887	77	4,043	3,811	-232
인천지역	1,120	1,044	-76	1,168	1,155	-13
경기지역	1,030	983	-47	985	1,047	62
강원지역	442	440	-2	490	477	-13
충청지역	2,253	1,909	-344	2,375	2,296	-79
호남지역	1,197	1,186	-11	1,559	1,433	-126
영남지역	1,177	1,112	-65	1,341	1,267	-74
제주지역	53	47	-6	67	71	4
합 계	11,082	10,608	-474	12,028	11,557	-471
구분	초등부			어린이교회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4,440	4,588	148	12,293	12,286	-7
인천지역	1,605	1,432	-173	3,893	3,631	-262
경기지역	1,244	1,233	-11	3,259	3,263	4
강원지역	617	552	-65	1,549	1,469	-80
충청지역	3,163	2,861	-302	7,791	7,066	-725
호남지역	1,854	1,781	-73	4,610	4,400	-210
영남지역	1,732	1,492	-240	4,250	3,871	-379
제주지역	120	132	12	240	250	10
합 계	14,775	14,071	-704	37,885	36,236	-1,649

2023년도 대비 유치부 학생 수는 474명이 줄어들었는데, 서울지역은 77명이 늘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고, 충청지역에서만 유치부 학생 수가 344명이 줄어 전체 감소 인원의 72.6%를 차지하였다. 유년부 학생수도 471명이 줄었는데 경기지역과 제주지역은 각각 62명, 4명이 늘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232명, 호남지역에서 126명이 줄

었다. 초등부 학생수는 704명이 줄어 어린이교회 전체 감소 인원의 42.7%를 차지하였다. 서울지역과 제주지역은 각각 148명, 12명이 늘었지만, 충청지역과 영남지역에서 302명, 240명이 줄었고, 인천지역에서도 173명이 줄어들었다.

<표 36> 2023년-2024년도 광역지역별 청소년교회 학생 수 변화표

구분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4,425	4,281	-144	3,351	3,795	444	7,776	8,076	300
인천지역	1,435	1,443	8	1,280	1,205	-75	2,715	2,648	-67
경기지역	1,192	1,170	-22	1,029	1,013	-16	2,221	2,183	-38
강원지역	493	470	-23	479	460	-19	972	930	-42
충청지역	2,578	2,528	-50	2,064	1,999	-65	4,642	4,527	-115
호남지역	1,502	1,225	-277	1,194	1,239	45	2,696	2,464	-232
영남지역	1,363	1,352	-11	1,236	1,168	-68	2,599	2,520	-79
제주지역	79	86	7	60	66	6	139	152	13
합 계	13,067	12,555	-512	10,693	10,945	252	23,760	23,500	-260

2024년 청소년교회는 전년에 비해 260명의 학생이 감소하였다. 중등부에서는 지난 한 해 512명의 학생이 줄었는데, 호남지역과 서울지역에서 각각 277명과 144명이 줄어 전체 감소 인원의 82.2%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인천지역과 제주에서는 각각 8명과 7명의 중학생이 늘었다.

고등부의 경우 전년 대비 252명의 학생이 늘었는데 서울지역에서만 444명이 늘었다. 반면 인천지역에서는 75명이, 영남지역에서는 68명의 고등학생이 줄어들었고 충청지역에서도 65명이 감소하였다.

청소년교회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232명의 호남지역이고 115명의 충청지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에 서울지역은 300명이 늘었고, 제주에서도 13명의 청소년이 증가하였다.

지난해 대비 우리 교단 청년 숫자는 655명이 감소하였는데,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6개 지역 모두 감소하였다. 서울지역의 청년 수는 578명이 증가하였고, 제주지역도 66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충청지역에서는 633명의 청년이 감소하였고, 인천지역에서도 308명이 지난 한 해 사라졌다. 경기지역 185명과 영남지역 103명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37> 2023년-2024년도 광역지역별 청년 수 변화표

구분	청년부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16,032	16,610	578
인천지역	4,418	4,110	-308
경기지역	3,196	3,011	-185
강원지역	1,253	1,231	-22
충청지역	6,938	6,305	-633
호남지역	3,448	3,400	-48
영남지역	4,332	4,229	-103
제주지역	106	172	66
합 계	39,723	39,068	-655

이제 지방회별 교회학교 학생 수를 조금 더 분석해 보자. 2024년 지방회별 교회당 학생 수는 아래의 <표 38>과 같다.

<표 38> 2024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회당 평균 학생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서울중앙	7.5	7.7	7.3	22.6	7.7	6.1	13.8	48.5
서 울 동	3.4	3.3	3.7	10.3	3.0	3.2	6.2	13.5
서 울 서	8.6	8.7	10.9	28.3	11.1	7.9	19.0	34.7
서 울 남	12.2	11.1	11.2	34.5	11.0	5.6	16.6	64.5
서 울 북	3.3	3.3	4.0	10.7	3.5	2.1	5.6	7.2
서울강서	4.9	5.1	6.4	16.4	5.7	4.7	10.4	17.1
서울강남	4.8	3.4	3.9	12.0	4.0	11.1	15.2	11.1
서울강동	4.7	4.2	6.3	15.2	5.0	4.4	9.4	15.3
서울제일	6.4	8.0	12.4	26.8	10.1	7.3	17.3	21.1
서 울	3.1	3.3	6.1	12.5	4.0	6.6	10.6	10.3
인 천 동	4.2	4.0	6.1	14.4	5.3	4.6	9.9	17.7
인 천 서	3.5	4.6	4.6	12.7	5.2	4.0	9.1	13.0
인 천 남	4.4	5.1	5.3	14.7	6.2	4.9	11.1	13.0
인천중앙	1.4	1.6	2.0	5.0	2.1	1.6	3.7	5.8
부 천	2.9	2.2	3.0	8.1	2.3	2.4	4.7	10.1
경 인	1.0	1.3	1.6	3.9	1.0	0.9	1.9	3.8
부 흥	1.9	2.4	3.8	8.2	4.9	4.5	9.3	14.1
경 기 동	3.9	3.6	4.2	11.7	3.9	3.0	6.9	8.3
경기중앙	2.8	2.7	2.5	8.1	3.3	2.1	5.4	9.0
경 기 남	3.8	4.0	4.4	12.2	3.9	4.6	8.6	9.5
경 기	2.5	3.3	4.6	10.4	4.0	3.4	7.4	15.9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경 기 서	5.1	5.7	6.6	17.4	6.6	5.2	11.8	13.2
경 서	1.1	1.0	1.7	3.8	1.2	1.1	2.3	3.0
강 원 동	2.3	3.0	3.4	8.7	3.1	2.6	5.8	7.1
강 원 서	4.2	3.8	4.3	12.4	3.8	4.2	8.0	9.5
강 원	2.5	3.1	3.7	9.3	2.8	2.6	5.4	9.1
충 북	3.0	4.7	5.7	13.4	3.5	1.9	5.5	9.6
청 주	4.3	4.5	6.5	15.3	5.7	3.6	9.3	13.1
충 청	4.7	3.6	4.5	12.7	4.1	2.9	7.0	15.6
충 서	3.0	3.5	3.9	10.3	4.3	2.6	6.9	7.5
충서중앙	2.8	3.3	4.5	10.6	3.2	3.5	6.6	6.2
대 전 동	2.2	3.2	3.3	8.6	2.8	2.6	5.4	9.9
대 전 서	3.3	3.4	4.9	11.7	4.5	4.0	8.5	14.9
대전중앙	3.5	5.3	7.0	15.9	5.5	4.2	9.7	10.9
충 남	2.1	3.2	4.1	9.4	4.3	3.4	7.7	8.5
세종공주	2.5	3.3	3.4	9.2	2.9	4.2	7.1	8.9
전 북	3.2	2.9	4.7	10.8	3.4	2.9	6.3	9.3
전 주	3.4	5.7	7.9	17.0	5.4	5.0	10.4	17.0
전북중앙	2.9	2.7	3.9	9.5	3.2	2.8	6.0	11.3
군 산	5.5	5.1	6.0	16.6	2.8	4.1	6.9	11.9
전 남 동	1.9	2.4	1.5	5.8	1.7	1.2	2.9	0.4
전 남 서	1.5	1.9	2.0	5.3	1.7	2.0	3.7	3.4
광 주	2.7	3.6	4.6	10.8	2.4	2.5	4.9	4.0
전 남	1.0	1.4	2.1	4.5	1.6	1.4	3.0	5.3
전남중앙	1.2	2.2	1.9	5.2	1.9	2.6	4.5	2.7
광 주 동	1.5	1.8	2.7	6.0	1.5	1.4	2.9	5.4
경 북	3.7	4.0	5.4	13.1	4.3	4.3	8.6	18.7
대 구	2.0	2.1	2.1	6.3	2.4	2.2	4.5	7.8
경 북 서	2.0	2.8	2.8	7.6	2.6	1.9	4.5	8.0
부 산 동	1.6	2.4	2.0	6.0	3.3	1.1	4.3	6.7
부 산 서	4.7	4.7	6.0	15.4	5.0	4.9	9.9	21.4
경 남	4.8	5.7	6.3	16.8	5.3	4.4	9.7	11.8
경 남 서	1.9	2.5	2.7	7.1	3.1	3.1	6.1	4.9
창원제일	1.0	1.3	2.2	4.6	2.1	1.9	4.0	6.0
울 산	2.6	2.2	3.2	8.1	2.1	2.0	4.2	8.8
제주직할	2.2	3.4	6.3	11.9	4.1	3.1	7.2	8.2
합 계	3.6	4.0	4.8	12.4	4.3	3.8	8.1	13.4

2024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교회 학생 수는 36,236명으로 교회당 평균 어린이교회학교 학생 수는 12.4명이다. 지난해 13.0명에 비해 0.6명이 줄어들었다. 청소년교회 학생 수는 23,500명으로 교회당 8.1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이다. 정상적인 교회학교를 꾸리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교회

당 청년 숫자의 평균은 13.4명으로 지난해 13.6명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다.

가장 교회학교가 활성화된 지방회는 서울서지방회로 어린이교회 학생 수를 3,026명, 청소년교회 학생 수는 2,033명, 청년은 3,716명으로 보고하였다. 어 교회당 평균 어린이교회 학생 수를 보면, 유치부는 3.6명, 유년부는 4.0명, 초등부는 4.8명으로 교회당 어린이교회 학생 수가 평균 12.4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회당 평균 학생수는 유치부 3.8명, 유년부, 4.1명, 초등부 5.1명이었다.

교회당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지방회, 즉 교회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로 유치부는 12.2명, 유년부는 11.1명, 초등부는 11.2명으로 교회당 34.5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지방회가 28.3명, 서울중제일지방회와 서울중앙지방회가 26.8명과 22.6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가장 학생 수가 적은 지방회는 경서지방회로 어린이교회 학생 수 평균이 유치부 1.1명, 유년부 1.0명, 초등부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인지방회 3.9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교회의 교회당 평균 학생 수는 8.1명인데 중등부는 4.3명, 고등부는 3.8명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교회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9.0명의 서울서지방회로 중등부는 11.1명, 고등부는 7.9명으로 보고되었다. 서울 제일지방회와 서울남지방회가 17.3명과 16.6명으로 선두권을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교회 평균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경인지방회로 교회당 평균 1.9명의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경서지방회가 2.3명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교회당 평균 청년 숫자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64.5명의 서울남지방회와 48.5명의 서울중앙지방회 그리고 34.7명의 서울서지방회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0.4명의 전남동지방회와 2.7명의 전남중앙지방회 그리고 3.4명의 전남 서지방회가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큰 편 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교회학교 교사 수 변화

2024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사 수는 아래 <표 39>와 같다. 우선 전국 56개 지방회 중 유치부의 교사 숫자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321명의 서울서지

방회이고, 292명의 서울남지방회와 184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유치부 교사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7명의 창원중앙지방회와 8명의 전남중앙지방회 그리고 9명의 부산동지방회 순이다.

<표 39> 2024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사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야간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서울중앙	184	112	164	460	102	96	198	126	254
서울동	87	38	51	176	37	43	80	20	131
서울서	321	228	290	839	201	153	354	38	328
서울남	292	208	185	685	155	108	263	45	257
서울북	34	29	42	105	30	23	53	20	91
서울강서	150	107	149	406	95	108	203	46	280
서울강남	106	83	81	270	71	64	135	47	229
서울강동	70	44	124	238	43	34	77	23	122
서울제일	72	33	49	154	32	32	64	18	129
서울	32	47	75	154	51	52	103	16	94
인천동	106	93	135	334	95	96	191	82	204
인천서	112	95	93	300	79	71	150	27	206
인천남	92	73	85	250	63	54	117	29	173
인천중앙	29	30	34	93	23	24	47	29	182
부 천	47	22	35	104	21	30	51	11	96
경 인	15	19	25	59	13	15	28	15	100
부 흥	19	24	39	82	15	14	29	34	71
경기동	61	53	56	170	40	41	81	26	162
경기중앙	49	44	48	141	38	25	63	24	103
경기남	99	71	71	241	60	55	115	33	201
경 기	52	55	62	169	53	50	103	23	167
경기서	70	74	86	230	66	60	126	21	138
경 서	21	15	26	62	15	14	29	9	75
강원동	38	45	53	136	33	27	60	21	134
강원서	81	59	62	202	72	42	114	17	167
강 원	39	37	45	121	28	25	53	14	122
충 북	47	38	33	118	25	21	46	18	105
청 주	110	78	103	291	83	57	140	18	162
충 청	96	81	87	264	62	53	115	23	147
충 서	94	90	106	290	110	59	169	55	312
충서중앙	56	50	51	157	29	33	62	13	89
대전동	60	54	61	175	45	47	92	28	178
대전서	68	59	66	193	44	49	93	30	106
대전중앙	100	56	64	220	53	53	106	24	156
충 남	53	60	77	190	52	55	107	24	188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회	청년부	교회학교 부서 수
세종공주	48	47	50	145	41	47	88	23	154
전 북	60	46	55	161	57	41	98	19	157
전 주	80	108	142	330	72	72	144	19	188
전북중앙	44	35	47	126	30	33	63	11	72
군 산	62	59	63	184	47	37	84	20	142
전남동	26	48	19	93	20	20	40	15	106
전남서	32	38	36	106	23	24	47	9	128
광 주	29	33	37	99	22	22	44	8	95
전 남	19	24	23	66	20	23	43	7	81
전남중앙	8	10	7	25	9	15	24	7	81
광주동	16	21	28	65	16	15	31	9	101
경 북	78	68	68	214	50	40	90	25	151
대 구	59	44	36	139	41	39	80	33	147
경북서	42	56	49	147	48	39	87	36	195
부산동	9	11	13	33	13	13	26	0	85
부산서	113	79	97	289	89	88	177	43	170
경 남	118	80	89	287	61	52	113	23	153
경남서	52	26	31	109	26	27	53	9	102
창원중앙	7	6	10	23	12	12	24	6	50
울 산	38	33	35	106	36	26	62	15	96
제주직할	17	17	21	55	13	13	26	8	69
합 계	3,919	3,193	3,769	10,881	2,780	2,481	5,261	1,392	8,182

유년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 또한 서울서지방회로 288명의 교사가 봉사하고 있으며, 서울남지방회 그리고 서울중앙지방회, 전주지방회가 각각 208명, 112명, 108명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창원중앙지방회와 전남중앙지방회, 부산동지방회가 각각 6명, 10명, 11명으로 하위권을 이루고 있다.

초등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도 290명의 서울서지방회이고, 185명의 서울남지방회와 164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남중앙지방회가 7명, 창원중앙지방회가 10명, 부산동지방회가 13명으로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어린이교회 전체 교사 수를 보면 서울서지방회가 839명을 보고하였으며, 서울남지방회는 685명이었다. 교사 수가 500명을 넘는 지방회는 없었으며, 400명을 넘는 지방회는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강서지방회로 각각 460명과 406명을 보고하였다.

중등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201명의 서울서지방회인데 교사 숫자가 200명이 넘는 유일한 지방회였으며, 155명의 서울남지방회와 110명의

충서지방회, 102명의 서울중앙지방회가 뒤를 따르고 있다. 중등부 교사 수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전남중앙지방회로 9명이 있으며, 창원중앙지방회 12명, 부산동지방회와 제주직할지방회가 모두 13명으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고등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도 153명의 서울서지방회이다. 다음은 서울남지방회와 서울강서지방회가 108명으로 2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고등부 교사가 가장 적은 지방회는 창원중앙지방회의 12명이고, 부산동지방회와 제주직할지방회가 13명으로 보고하였다.

청소년교회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354명의 서울서지방회로 유일하게 300명을 넘긴 지방회이다. 청소년교회 교사 수가 200명이 넘는 지방회는 263명의 서울남지방회와 203명의 서울강서지방회이다.

청년부 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방회는 126명의 서울중앙지방회이다. 다음은 82명의 인천동지방회이고 나머지 지방회는 50명을 넘지 못하였다. 부산동 지방회는 청년부 교사를 0명으로 보고하였다.

교회당 교회학교 교사의 평균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40> 2024년도 지방회별 교회학교 교회당 평균 교사 수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서울중앙	2.6	1.6	2.3	6.5	1.4	1.4	2.8	1.8
서울동	1.9	0.8	1.1	3.7	0.8	0.9	1.7	0.4
서울서	3.0	2.1	2.7	7.8	1.9	1.4	3.3	0.4
서울남	4.1	2.9	2.6	9.6	2.2	1.5	3.7	0.6
서울북	0.8	0.7	1.0	2.4	0.7	0.5	1.2	0.5
서울강서	1.9	1.4	1.9	5.2	1.2	1.4	2.6	0.6
서울강남	1.6	1.3	1.2	4.1	1.1	1.0	2.0	0.7
서울강동	2.1	1.3	3.8	7.2	1.3	1.0	2.3	0.7
서울제일	1.9	0.9	1.3	4.1	0.8	0.8	1.7	0.5
서울	0.6	0.9	1.4	2.9	1.0	1.0	1.9	0.3
인천동	1.5	1.3	1.9	4.8	1.4	1.4	2.7	1.2
인천서	1.7	1.5	1.4	4.6	1.2	1.1	2.3	0.4
인천남	1.8	1.4	1.7	4.9	1.2	1.1	2.3	0.6
인천중앙	0.5	0.5	0.6	1.6	0.4	0.4	0.8	0.5
부천	1.3	0.6	1.0	3.0	0.6	0.9	1.5	0.3
경인	0.3	0.4	0.5	1.3	0.3	0.3	0.6	0.3
부흥	0.5	0.7	1.1	2.3	0.4	0.4	0.8	1.0
경기동	1.2	1.0	1.1	3.3	0.8	0.8	1.6	0.5
경기중앙	1.1	1.0	1.1	3.3	0.9	0.6	1.5	0.6
경기남	1.5	1.1	1.1	3.7	0.9	0.8	1.8	0.5

지 방 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청년부
경 기	1.0	1.1	1.2	3.3	1.0	1.0	2.0	0.4
경 기 서	1.5	1.6	1.9	5.0	1.4	1.3	2.7	0.5
경 서	0.4	0.3	0.5	1.3	0.3	0.3	0.6	0.2
강 원 동	0.8	0.9	1.1	2.8	0.7	0.6	1.2	0.4
강 원 서	1.6	1.2	1.2	4.0	1.4	0.8	2.2	0.3
강 원	0.9	0.8	1.0	2.8	0.6	0.6	1.2	0.3
충 북	1.2	1.0	0.9	3.1	0.7	0.6	1.2	0.5
청 주	1.7	1.2	1.6	4.5	1.3	0.9	2.2	0.3
충 청	1.7	1.4	1.5	4.6	1.1	0.9	2.0	0.4
충 서	0.9	0.8	1.0	2.7	1.0	0.5	1.6	0.5
충서중앙	0.9	0.8	0.9	2.6	0.5	0.6	1.0	0.2
대 전 동	0.8	0.8	0.9	2.5	0.6	0.7	1.3	0.4
대 전 서	1.4	1.2	1.3	3.9	0.9	1.0	1.9	0.6
대전중앙	2.0	1.1	1.3	4.5	1.1	1.1	2.2	0.5
충 남	0.8	0.9	1.1	2.8	0.8	0.8	1.6	0.3
세종공주	0.9	0.9	1.0	2.8	0.8	0.9	1.7	0.4
전 북	1.2	0.9	1.1	3.3	1.2	0.8	2.0	0.4
전 주	1.4	1.8	2.4	5.6	1.2	1.2	2.4	0.3
전북중앙	1.3	1.0	1.3	3.6	0.9	0.9	1.8	0.3
군 산	1.1	1.1	1.2	3.4	0.9	0.7	1.6	0.4
전 남 동	0.5	0.9	0.3	1.7	0.4	0.4	0.7	0.3
전 남 서	0.4	0.5	0.5	1.5	0.3	0.3	0.6	0.1
광 주	0.9	1.0	1.2	3.1	0.7	0.7	1.4	0.3
전 남	0.5	0.6	0.6	1.7	0.5	0.6	1.1	0.2
전남중앙	0.3	0.3	0.2	0.8	0.3	0.5	0.8	0.2
광 주 동	0.4	0.5	0.7	1.6	0.4	0.4	0.8	0.2
경 북	1.6	1.4	1.4	4.3	1.0	0.8	1.8	0.5
대 구	1.4	1.0	0.9	3.3	1.0	0.9	1.9	0.8
경 북 서	0.7	0.9	0.8	2.4	0.8	0.6	1.4	0.6
부 산 동	0.3	0.4	0.4	1.1	0.4	0.4	0.8	0.0
부 산 서	2.5	1.7	2.1	6.3	1.9	1.9	3.8	0.9
경 남	2.3	1.5	1.7	5.5	1.2	1.0	2.2	0.4
경 남 서	1.1	0.6	0.7	2.3	0.6	0.6	1.1	0.2
청원중앙	0.3	0.3	0.4	1.0	0.5	0.5	1.0	0.3
울 산	1.1	1.0	1.0	3.1	1.1	0.8	1.8	0.4
제주직할	0.8	0.8	1.0	2.6	0.6	0.6	1.2	0.4
합 계	1.3	1.1	1.3	3.7	1.0	0.9	1.8	0.5

어린이교회의 평균 교사 수는 4명이 채 되지 않으며, 청소년교회는 2명이 되지 못한다. 교사 수급이 가장 원활한 지방회는 서울남지방회로 어린이교회는 9.6명, 청소년교회는 3.3명의 교사가 평균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2023년에

비해 어린이교회 교사는 0.2명이 늘었고, 청소년부 교사는 0.1명이 줄었다. 청년부 교사의 경우 서울중앙지방회가 지난해보다 0.1명이 늘어난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동지방회와 부흥지방회가 각각 1.2명, 1.0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다.

광역시역별 교회학교 교사 수 변화는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2023년-2024년도 광역지역별 어린이교회 교사 수 변화표

구분	유치부			유년부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1,387	1,348	-39	960	929	-31
인천지역	447	420	-27	356	356	0
경기지역	354	352	-2	310	312	2
강원지역	176	158	-18	107	141	34
충청지역	644	732	88	568	613	45
호남지역	392	376	-16	426	422	-4
영남지역	504	516	12	410	403	-7
제주지역	16	17	1	18	17	-1
합 계	3,920	3,919	-1	3,155	3,193	38
구분	초등부			어린이교회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1,137	1,210	73	3,484	3,487	3
인천지역	448	446	-2	1,251	1,222	-29
경기지역	345	349	4	1,009	1,013	4
강원지역	173	160	-13	456	459	3
충청지역	613	698	85	1,825	2,043	218
호남지역	491	457	-34	1,309	1,255	-54
영남지역	493	428	-65	1,407	1,347	-60
제주지역	31	21	-10	65	55	-10
합 계	3,731	3,769	38	10,806	10,881	75

2023년도 대비 유치부 교사 수는 1명이 줄어들었는데, 충청지역은 77명이 늘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다. 충청지역에서 유치부 학생 수가 344명이 줄었음에도 교사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의외이다. 통계 작성에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유년부 교사 수는 38명이 늘었는데 강원지역과 충청지역에서 각각 34명, 45명이 늘었고, 서울지역에서 31명이 감소하였다. 초등부 교사 수는 38명이 늘었는데 서울지역과 충청지역이 각각 73명, 85명이 늘었지만, 영남지역에서는 65명이 줄었고, 호남지역과 강원지역에서도 각각 34명, 13명이 감소하였

다. 어린이교회 교사 수는 지난해에 비해 75명이 늘었는데, 충청지역에서만 218명이 늘어난 것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남과 호남, 인천지역의 전체 교사 수는 각각 60명, 54명, 29명이 줄었고, 제주지역도 초 등부에서만 10명이 줄었다.

<표 42> 2023년-2024년도 광역지역별 청소년교회 교사 수 변화표

구분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교회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852	817	-35	739	713	-26	1,591	1,530	-61
인천지역	319	309	-10	312	304	-8	631	613	-18
경기지역	279	272	-7	234	245	11	513	517	4
강원지역	109	133	24	101	94	-7	210	227	17
충청지역	455	544	89	425	474	49	880	1,018	138
호남지역	341	316	-25	302	302	0	643	618	-25
영남지역	365	376	11	361	336	-25	726	712	-14
제주지역	8	13	5	8	13	5	16	26	10
합 계	2,728	2,780	52	2,482	2,481	-1	5,210	5,261	51

2024년 청소년교회는 전년에 비해 51명의 교사가 증가하였다. 중등부에서는 지난 한 해 52명의 교사가 늘었는데, 충청지역에서만 89명이 늘었고, 강원 지역과 영남, 제주지역도 각각 24명, 11명, 5명이 늘었다.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35명의 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호남지역과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25명, 10명, 7명의 교사가 사라졌다.

고등부의 경우 전년 대비 1명의 교사만이 줄었는데 역시나 충청지역에서 49명이 늘어난 대신 서울지역과 영남지역에서 각각 26명, 25명이 줄었고, 인천지역과 강원지역에서도 8명과 <표 43> 2023년-2024년도 광역지역별
청년부 교사 수 변화표
7명이 교육 현장을 떠나갔다.

지난해 대비 우리 교단 청년 부 교사 수는 5명이 감소하였는데, 서울지역에서만 51명이 줄었지만, 충청지역에서 52명이 늘어 균형을 이루었다. 인천지

구분	청년부		
	2023	2024	증감
서울지역	450	399	-51
인천지역	254	227	-27
경기지역	137	136	-1
강원지역	50	52	2
충청지역	204	256	52

역에서도 청년부 교사가 27명이 사라졌고 대신에 영남지역에서 15명이 늘었다.

구분	청년부		
	2023	2024	증감
호남지역	119	124	5
영남지역	175	190	15
제주지역	8	8	0
합 계	1,397	1,392	-5

2. 교역자 수의 변화

한국 사회는 2000년대부터 탈종교화 사회로 들어섰다.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이다. 이는 2014년의 50%에 비해 10%나 떨어진 비율이다.

종교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실에 교역자 수를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의 재정이 악화하면 교역자의 생활 수준과 목회 사역의 질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단 헌법 제4조 2항 차호에는 목사에 대해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로 규정하며 이중직을 금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목회자가 생존을 위한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회자의 이중직은 이제까지는 모르는 척하며 눈감아주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공공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는 문제이다.

이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많은 전도사가 전임 사역자를 구할 수 없어 주중에 직업을 가지는 주말 사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이에 따른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목회자의 질적 하락은 결국 교회사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18년차 총회는 적절한 교단의 교역자수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교세통계표〉를 통해 보고된 우리 교단의 교역자 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4> 연도별 교역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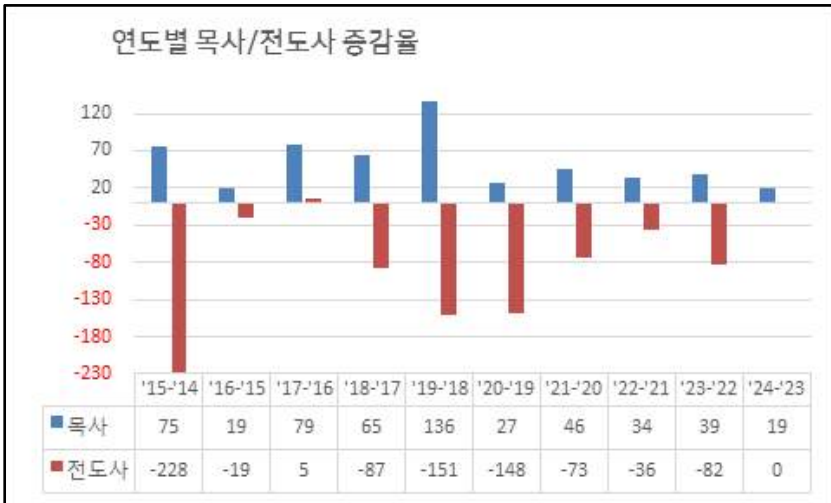
연도	목사	비중	전도사	비중	계
2014	4,326명	66.0%	2,231명	34.0%	6,557명
2015	4,401명	67.7%	2,097명	32.3%	6,498명
2016	4,420명	68.1%	2,073명	31.9%	6,493명
2017	4,499명	68.4%	2,082명	31.6%	6,581명
2018	4,564명	69.1%	2,043명	30.9%	6,607명
2019	4,700명	70.5%	1,962명	29.5%	6,662명
2020	4,727명	71.6%	1,875명	28.4%	6,602명
2021	4,773명	72.3%	1,827명	27.7%	6,600명
2022	4,807명	72.6%	1,815명	27.4%	6,622명
2023	4,846명	73.4%	1,756명	26.6%	6,602명
2024	4,865명	73.5%	1,757명	26.5%	6,622명
2024-2014	539명		-474명		65명
연평균	53.9명		-47.4명		6.5명

<그래프 6> 지난 10년간 교역자 수 변화



2014년 현재 4,228명이던 전체 목자의 숫자는 10년간 총 539명이 늘어 2024년 현재 4,865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에 2014년도에 2,231명이던 전도사의 숫자는 동기간 474명이 줄어 2024년 현재 1,757명이었다. 목사와 전도사의 증감 현황은 아래의 <그래프 6>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프 7> 연도별 목사/전도사 증감율



연평균 목사는 53.9명씩 늘어나는데 전도사는 47.4명씩 줄어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라 할 것이다. 교역자의 직분에 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생활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빈약한 사례비 문제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다.

<표 45> 연도별 남녀 교역자 수 증감 현황

구분	목사		전도사	
	남	여	남	여
2015-2014	49명	26명	-94명	-134명
2016-2015	2명	17명	5명	-24명
2017-2016	42명	37명	-4명	9명
2018-2017	30명	35명	-48명	-39명
2019-2018	108명	28명	-70명	-81명
2020-2019	-3명	30명	-61명	-87명
2021-2020	39명	7명	-25명	-48명
2022-2021	2명	32명	-24명	-12명
2023-2022	15명	24명	-23명	-59명
2024-2023	11명	8명	-1명	1명
합계	295명	244명	-345명	-474명

이 외에도 전도사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서울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수의 감소 보다 목회신학연구원, 특히 지방교역자양성원의 신입생 급감에도 주요한 원이 있다. 이미 신입생이 1~2명인 지방교역자양성원도 여럿이며,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던 서울중앙신학교마저 40여 명의 재학생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은 지방신학교양성원의 통폐합에 대한 심각한 고려와 온라인을 이용한 학습의 허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총회임원회와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서울신학대학교와 목회신학연구원, 지방교역자양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중장기적인 추계를 연구한 후 통폐합과 정원 감소 등 과감한 정책과 더불어 전도사의 생활 수준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선까지 올려주는 것도 중요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남자 전도사는 345명이 줄었고, 여자 전도사도 474명이 줄었다. 동기간 남성 목사는 295명이 늘었고 여성 목사도 244명이 늘었다. 여성 안수 제도가 총회를 통과한 이후, 안수를 받는 여전도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남성 전도사의 대부분은 안수를 통해 목사가 되지만 여전히 여성 전도사의 절반은 여러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거나 전도사로 정년 은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연도별 전체 교역자 중 남성-여성 교역자 비중 증감 현황

구분	목사		전도사	
	남	여	남	여
2014	96.5%	3.5%	45.3%	54.7%
2015	95.9%	4.1%	43.7%	56.3%
2016	95.6%	4.4%	44.4%	55.6%
2017	94.8%	5.2%	44.0%	56.0%
2018	94.1%	5.9%	42.5%	57.5%
2019	93.7%	6.3%	40.7%	59.3%
2020	93.1%	6.9%	39.4%	60.6%
2021	93.0%	7.0%	39.0%	61.0%
2022	92.4%	7.6%	38.0%	62.0%
2023	92.0%	8.0%	37.9%	62.1%
2024	91.8%	8.2%	37.8%	62.2%
2024-2014	-4.6%	4.6%	-7.4%	7.4%

동 기간 내 연도별 남성-여성 교역자 비중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목사나 전도사를 불문하고 남성 교역자의 비중이 소폭 감소는 추세이며, 그만큼

여성 교역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 목사 숫자는 아직 목사 전체 인원의 8.20%밖에 되지 않지만, 전도사는 여성이 전체 전도사 인원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이를 통하여도 남자전도사의 절대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있지만, 여자전도사가 안수받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전도사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3. 교직자 수의 변화

교회 안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의 운영과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자 수의 변화는 해 교회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 교단은 장로 35세, 권사 45세, 안수집사 35세, 집사 22세로 해당 직분의 최저 연령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직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교회나 교단을 구성하는 성도의 연령대 분포를 개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47> 연도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수 변화

연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합계
2014	7,012명	45,803명	8,386명	129,274명	190,475명
2015	6,998명	46,548명	8,715명	126,238명	188,499명
2016	7,111명	46,839명	8,824명	120,407명	183,181명
2017	7,283명	48,838명	9,268명	119,341명	184,730명
2018	7,527명	50,010명	9,558명	116,545명	183,640명
2019	7,722명	51,350명	9,691명	117,034명	185,797명
2020	7,817명	52,665명	9,844명	111,552명	181,878명
2021	7,975명	53,780명	10,014명	109,772명	181,541명
2022	8,144명	54,644명	10,267명	107,033명	170,131명
2023	8,284명	57,255명	10,474명	104,358명	180,371명
2024	8,413명	56,821명	10,506명	103,007명	178,747명
2024-2014	1,401명	11,018명	2,120명	-26,267명	-11,728명
연평균	140.1명	1,101.8명	212명	-2,626.7명	-1,172.8명

<교세통계표>를 통해 보고된 지난 10년간 교회 안의 교직자 수의 증가는 <표 47>과 같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장로는 1,401명이 늘었고, 권사는 11,018명이 늘었다. 안수집사 또한 2,120명이 늘어났으나 집사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6,26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집사의 감소 현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8> 연도별 남녀 집사 수 증감 현황

집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	48,634	48,113	45,787	45,651	44,920	45,523
여	80,640	78,125	74,620	736,90	71,625	71,511
집사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2014
남	43,855	43,535	42,947	42,101	41,950명	-6,684명
여	67,697	66,237	64,086	62,257	61,057명	-19,583명

2014년에 보고된 남성 집사의 숫자는 48,634명, 여성 집사는 80,640명이었으나 2024년 현재 남성 집사는 41,950명으로 6,684명이 줄었고, 여성 집사는 19,583명이 줄어든 61,057명으로 보고 되었다.

문제는 추세이다. 매년 1,600여 명씩 여성 집사가 줄어드는 대신 930여 명씩 여성 권사와 여성 장로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 집사도 매년 520여 명씩 감소하고 있는데 남성 권사와 남성 장로는 300여 명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프 8> 연도별 남녀 집사 수 증감을



우리 교단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 받는 것을 고려하면 30대 초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의 집사들이 대거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교회 안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 안의 고령화 현상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어찌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노년 성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변경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제118년차 총회 주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성경 공부’ 첫 번째 과목으로 ‘시니어교육교재’를 개발한 것은 그런 면에서 좋은 시도가 될 것이며 특히 중장년, 청년 등 특화된 교재가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진 교재는 적극적으로 보급되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4. 교인구성비의 변화

<표 49> 연도별 전체 교인 대비 세례교인, 새신자 인원 및 비중 변화

연도	세례교인		새신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14	355,047명	64.8%	86,747명	15.8%
2015	319,914명	65.1%	77,045명	15.7%
2016	302,226명	65.5%	73,627명	16.0%
2017	301,048명	66.2%	69,013명	15.2%
2018	296,178명	67.4%	61,472명	14.0%
2019	292,955명	68.0%	60,129명	14.0%
2020	283,361명	71.0%	46,462명	11.6%
2021	282,172명	72.2%	46,211명	11.8%
2022	280,861명	72.6%	46,373명	12.0%
2023	280,093명	72.6%	46,757명	12.1%
2024	277,457명	72.9%	45,231명	11.9%
2024-2014	-77,590명	8.1%	-41,516명	-3.9%
연평균	-7,759명	0.81%	-4,151.6명	-0.39%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분자와 세례교인과 새신자가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할 것이다. 새신자 규모가 작다면 교회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직분자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회라면 향후 급격한 교세 감소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2014년도 우리 교단 전체 교인 대비 세례교인과 새신자의 비중은 각각 64.8%와 15.8%였다. 10년 후 2024년에는 그 비중이 세례교인은 72.9%로 새신자는 11.9%로 변화하였다. 동 기간 내 세례교인 수와 새신자 유입 수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세례교인 수는 77,590명이 줄어 전체 세례교인 수의 21.9%가 감소하였고, 새신자 수는 41,516명이 줄었는데 이는 2014년도 새신자 유입 수의 47.9%에 해당한다. 지난 11년간 세례교인은 연평균 7,759명이 줄었고, 새신자 유입 수는 그 절반이 넘는 4,15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세례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교회 내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세례교인 수가 21.9% 감소하는 동안 교회 내 세례교인의 비중은 8.1%가 늘었다. 반면에 새신자 유입 수가 47.9% 줄어드는 동안 교회 내에서 새신자의 비중도 3.9%씩 줄어든 것이다.

세례교인의 절대인원이 줄어들고, 새신자의 유입 비중도 줄어들지만 세례교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유는 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교인 대비 각 직분의 비중은 아래 <표 50>과 같다.

<표 50> 연도별 전체 교인 대비 각 직분 비중 변화

연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학교
2014	1.3%	8.4%	1.5%	23.6%	19.1%
2015	1.4%	9.5%	1.8%	25.7%	19.0%
2016	1.5%	10.1%	1.9%	26.1%	18.6%
2017	1.6%	10.7%	2.0%	26.3%	18.6%
2018	1.7%	11.4%	2.2%	26.5%	18.6%
2019	1.8%	11.9%	2.2%	27.2%	18.1%
2020	2.0%	13.2%	2.5%	27.9%	17.4%
2021	2.0%	13.8%	2.6%	28.1%	16.0%
2022	2.1%	14.1%	2.7%	27.7%	15.4%
2023	2.1%	14.8%	2.7%	27.1%	15.3%
2014	2.2%	14.9%	2.8%	27.1%	15.1%
2024-2014	0.9%	6.6%	1.2%	3.5%	-4.0%
연평균	0.1%	0.5%	0.1%	0.3%	-0.3%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체 교인 대비 장로의 비중은 1.3%에서

2.2%로 0.9%p 늘었으며, 권사는 6.6%p, 안수집사는 1.2%p 늘어났다. 집사도 3.5%p 늘었는데 2013년도에 23.6%였던 교인 대비 집사의 비중이 2023년에는 3.5%p가 늘어 27.1%가 되었다.

교회 안에서 어린아청소년의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 2014년 전체 교인 수의 19.1%를 차지하고 있던 교회학교 학생 수는 2024년 현재 15.1%까지 줄어들었다. 계속 우하향 추세이다. 2021년 전체 인구 대비 현재 0세부터 14세 인구의 비중은 11.8%인 것에 비한다면 아직은 3.3%의 여유가 있어 괜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어린이 인구 감소 속도보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표 51> 연도별 교회 내 직분자 비중 변화

연도	교역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2014	3.3%	3.6%	23.2%	4.3%	65.6%
2015	3.3%	3.6%	23.9%	4.5%	64.7%
2016	3.4%	3.7%	24.7%	4.7%	63.5%
2017	3.4%	3.8%	25.5%	4.8%	62.4%
2018	3.5%	4.0%	26.3%	5.0%	61.3%
2019	3.5%	4.0%	26.7%	5.0%	60.8%
2020	3.5%	4.1%	27.9%	5.2%	59.2%
2021	3.5%	4.2%	28.6%	5.3%	58.3%
2022	3.5%	4.4%	29.3%	5.5%	57.3%
2023	3.5%	4.4%	30.6%	5.6%	55.8%
2024	3.6%	4.5%	30.7%	5.7%	55.6%
2024-2014	0.3%	0.9%	7.5%	1.4%	-10%
연평균	0.03%	0.09%	0.75%	0.14%	-1%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교회 내 직분자들의 구성비 변화는 위 <표 51>과 같다. 교회 내 직분자 중 교역자의 비중은 2014년 3.3%에서 3.6%로 0.3%p 늘어났다. 반면 장로의 비중은 3.6%에서 4.5%로 0.9%p가량 늘어났으며 권사와 안수집사는 각각 23.2%와 4.3%에서 30.7%와 5.7%로 7.5%p와 1.4%p 늘

어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집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비중의 감소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2014년 전체 직분자 중 65.6%를 차지하던 집사의 비중이 2024년 현재 55.6%로 10.0%p나 줄어들었다.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무디어지긴 하였지만, 감소 추세는 여전하며 이는 교단의 고령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5. 목회 현장의 변화

교단의 유일한 통계자료인 <교세통계표>를 매년 분석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목회 현장에 있다. 교회 수의 증가와 교인 수의 감소는 이제 일상화된 현상이며, 직분자의 증가에 못 미치는 새신자의 증가 속도는 교회 현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표 52> 연도별 교회당 평균 기대치 변화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새신자	교인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회학교
2014	129.0명	31.5명	199.1명	2.5명	16.6명	3.0명	47.0명	38.0명
2015	114.5명	27.6명	175.9명	2.5명	16.7명	3.1명	45.2명	33.5명
2016	107.4명	26.2명	164.1명	2.5명	16.7명	3.1명	42.8명	30.5명
2017	105.3명	24.1명	159.0명	2.5명	17.1명	3.2명	41.8명	29.5명
2018	104.1명	21.6명	154.4명	2.6명	17.6명	3.4명	41.0명	28.7명
2019	101.5명	20.8명	149.3명	2.7명	17.8명	3.4명	40.6명	27.0명
2020	97.8명	16.0명	137.8명	2.7명	18.2명	3.4명	38.5명	23.9명
2021	97.5명	16.0명	135.1명	2.8명	18.6명	3.5명	37.9명	21.6명
2022	97.0명	16.0명	133.6명	2.8명	18.9명	3.5명	37.0명	20.5명
2023	96.1명	16.0명	132.3명	2.8명	19.6명	3.6명	35.8명	20.2명
2024	95.2명	15.5명	130.5명	2.9명	19.5명	3.6명	35.3명	19.7명
'24-'14	-33.8명	-16.0명	-68.6명	0.4명	2.9명	0.6명	-11.7명	-18.3명
연평균	-3.38명	-1.6명	-6.86명	0.04명	0.29명	0.06명	-1.17명	-1.83명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교단의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새신자, 교인, 직분자 및 교회학교 숫자는 위 <표 52>와 같다. 2014년 교회당 평균 129.0명이던 세례교인은 현재 95.2명으로 33.8명이 줄었다. 새신자 유입수는 동 기간에 31.5명에서 15.5명으로 16.0명이 감소하였고, 교인 수 역시 199.1명에서 130.5명으로 연평균 6.86명씩, 68.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그 감소세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우하향하는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회당 평균 세례교인 수는 교회의 역량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고, 새신자 수는 교회의 역동성을, 교인 수는 교회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즉 세례교인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인적물적 기여가 가능한 교인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신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표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교회당 평균 장로 수는 2.5명에서 2.9명으로 0.4명이 늘었으며, 권사는 16.6명에서 19.5명으로 2.9명이 늘었다. 안수집사도 3.0명에서 3.6명으로 0.6명이 늘었지만, 집사와 교회학교 학생 수는 각각 47.0명과 38.0명에서 35.3명과 19.7명으로 지난 2014년 이래 교회당 평균 집사 수는 11.7명, 교회학교 학생 수는 18.3명이 감소하였다.

<표 53> 목사 1인당 기대 세례교인, 교인수

연도	목사 1인당 기대			
	세례교인		교인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14	82.1명	-	126.7명	-
2015	72.7명	-9.38명	111.7명	-15.05명
2016	68.4명	-4.31명	104.4명	-7.24명
2017	66.9명	-1.46명	101.0명	-3.40명
2018	64.9명	-2.02명	96.3명	-4.76명
2019	62.3명	-2.56명	91.7명	-4.57명
2020	59.9명	-2.39명	84.4명	-7.24명
2021	59.1명	-0.83명	81.9명	-2.54명
2022	58.4명	-0.69명	80.4명	-1.47명
2023	57.8명	-0.63명	79.6명	-0.84명

연도	목사 1인당 기대			
	세례교인		교인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24	57.0명	-0.77명	78.2명	-1.40명
2024-2014	-25.1명	-0.77명	-48.5명	-1.4명
연평균	-2.51명	-0.077명	-4.85명	-0.14명

목사 1인당 평균 세례교인 수와 교인 수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 1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2013년 목사 1인당 담당하는 세례교인은 82.1명이고 교인은 126.7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목사 1인당 세례교인 수는 57.8명으로 25.1명이나 줄었으며, 교인 수는 78.2명으로 48.5명이 감소하였다.

2023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37,570,000원이다. 일반적인 교인이라면 매년 375만원의 십일조를 헌금하게 되고 절기와 여러 헌금을 한다는 가정하에 1인당 5,000,000 원의 헌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24년도에 기대하는 57명의 성도가 부모와 두 자녀가 4인 가구를 이루었을 경우, A 교회는 15가구가 출석하는 교회라 할 수 있다. 한 가정당 5,000,000원의 헌금을 매년 한다고 할 때, 해 지교회의 기대 예산은 75,000,000원이다. 우리 교단은 경상비 30,000,000원 미만의 교회를 작은교회(미자립교회)로 규정하고 있으니 A 교회는 작은교회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운영에 지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2024년 현재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는 겨우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 규모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얼마지나지 않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현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평균 수는 1.6명, 전도사는 0.8명으로 2.4명의 교역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목사 1.7명, 전도사 0.6명으로 2.9명이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기간 목사는 0.1명이 늘고 전도사는 0.2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

6.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교단의 현황을 <교세통계표>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은 통계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어린아·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야기되는 교회학교 공동화 등은 사회구조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기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전도가 되지 않기에 교회의 고령화가 가속되며 교회학교의 공동화가 급속히 발생하는 것이다. 기 성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신자가 교회에 유입되지 않음으로 봉사와 사역을 담당할 교회의 허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며 보좌해야 할 총회본부의 구조개혁이 시급한 점이 여기에 있다. 50여 년 전에 설계된 총회본부의 조직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도움을 요청하는 지교회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조직은 조금 더 통합적이어야 하며 수행업무를 위한 유기적이며 유연한 형태로 존재하여야 한다.

직원 개인의 능력은 곧 교단 발전의 가늠자라 할 수 있기에 직원의 계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단의 발전을 조망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며 제출하는 계획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19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제118년차 주요 사업

제118년차 교단 표어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

세상의 빛, 사회의 소금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 회개 기도 성회

2025.6.20.(목) / 신촌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류승동 목사) ‘제118년차 총회’가 지난 20일 서울 신촌교회(담임:박노훈 목사)에서 ‘성결교회 회개 기도성회’를 드렸다. 지난 달 정기총회를 마친 후 교단을 새롭게 정비한 기성은 새로운 한 회기를 회개 기도로 시작하며 거룩한 성결인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회개와 상생’을 주제로 △1부 ‘찬양과 예배’ △2부 ‘회개로의 촉구’ △3부 ‘기도회’ 순으로 진행됐다.

부총회장 안성우 목사가 집례한 1부 예배에서는 증경총회장이자 신촌교회 이정익 원로목사가 ‘회개와 회복, 성결의 매력을 회복할 때’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3.1운동 당시 기독교인 수는 30만명 정도였지만, 그들은 일제에 저항하는 일에 중심이 됐다. 그렇게 당시 교회는 매력을 받았다”며 “지난 1970~80년대에도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 매력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위기 가운데 처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결교회도 어느 순간 전도와 성결, 회개에 소홀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라버린 눈물”이라며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보자는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련했다. 오늘날 세상도 교회에 경건과 성결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 출발은 ‘회개’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자 달

힌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회개 기도"에 있다"고 덧붙였다.

교단이 가장 시급히 회복할 것도 결국 회개라고 거듭 강조한 이목사는 “말라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것, 가슴을 치며 회개를 외치는 것, 그래서 성결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 회개와 성결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배 이후에는 ‘회개와 상생’ 세미나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용서의 복음’을 주제로 강연한 서울신대 하도균 교수는 복음의 핵심은 ‘용서’라는 권면의 말을 전했다.

특히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진리라고 목소리를 높인 하도균 교수는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며 “용서의 결실은 화해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은혜와 상생이 있다. 우리 교단, 나아가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성 총회 임원들은 강단에 올라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회복과 부흥을 간구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 역시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았다. 이후 총회장 류승동 목사가 집례한 성찬식을 갖고, 증경총회장 이신웅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 출처: 아이굿뉴스

작은교회 목회자 건강검진

2024.8.~2025.4./ 한국의학연구소(KMI)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종 로그인 기록은 최근 10회까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10회 이상 입력하면 10회 이상 입력한 기록이 표시됩니다.)

로그인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찾기

이웃안내 센터 : 1533-0505

평일 : 오전 07:00 ~ 오후 06:00

토요일 : 오전 07:00 ~ 오후 02:00 (일요일 휴무)

KMI 한국의학연구소

© 2025 KMI All Rights Reserved.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평생용 건강검진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는

KMI 헬스케어가 함께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18차 총회(총회장 류승동 목사)는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과 교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자신의 건강을 제때 돌보지 못해 질병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사업으로 '작은교회 목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방회당 목회자 2명씩 추천을 받아 55개 지방회에서 총 110명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8개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25년 3월까지 검진을 진행한다. 신청시 지불하는 예약비 5만원은 검진 완료 후 총회에서 환급한다.

지방회가 1인당 75만원 후원시 사모도 동일한 비용으로 검진이 가능하다. 추천 대상이 아니어도 성결가족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비용을 내고 검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석회화CT, CT정밀(허리, 목, 폐, 뇌 태2), 폐섬유화, 간섬유화검사, 유전자정신질환 5종(공황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검사, 내시경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KMI)와 맺은 협약에 따라 뇌혈관MRI, 목·허리MRI(태1) 검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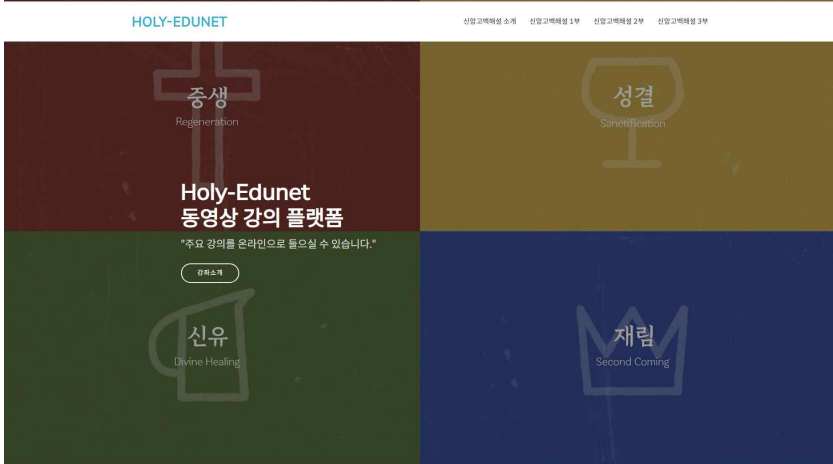
신촌교회 박노훈 목사(좌)는 총회 총무 문창국 목사(우)에 작은교회 목회자 건강검진 지원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성결신문

한편 이를 위해 교회와 평신도 단체, 개인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신촌교회(담임 박노훈 목사)는 지난 16일 교단 총무 문창국牧사를 초청해 작은교회 목회자 건강검진 지원금 2,5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성 총회는 "사업 예산은 최소 100명(7,500만원)을 목표로 개 교회 등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후원 규모에 따라 수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교일보

동영상 강의 플랫폼 Holy-Edunet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쉽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필요 속에 본 영상교재가 제작되었다. 이 영상교재는 성결교회의 핵심 신학인 사중복음과 웨슬리 신학을 바탕으로, 교리적 깊이와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또한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목회자뿐 아니라 교사와 일반 성도들도 성결교회의 신앙을 바로 알고 다음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이다. 이를 위해 교단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신학적 검토와 교육적 배려를 거쳐 신앙교백의 내용을 교육 교재로 구현해냈으며,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모두 조율했다. 성경적 근거 위에 세워진 이 영상교재를 통해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가 신앙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데 활용될 것이다.



시니어 에센스 시리즈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교단들도 노년을 위한 영성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류승동 목사)가 교회 핵심 세대인 노년층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시니어 에센스 시리즈’(사랑마루·표지)를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성은 이번 회기 주된 사역 중 하나를 ‘노년 목회’로 정하고 모든 프로그램



램과 세미나 등에서 시니어에 초점을 뒀다. 이에 발맞춰 출간한 ‘시니어 에센스 시리즈’는 총 4권으로 노년 담당 지도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 1권과 노년을 위한 워크북 3권으로 이뤄졌다. 다른 노년 교재와 차이점은 단순히 성경공부뿐만 이뤄진 게 아니라 건강관리, 은퇴 후 생활, 장례 준비 등 노년의 실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 소명 소망이라는 대주제 아래 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게 돕는다.

이 교재는 서울 동안성결교회(류태우 목사)가 이미 적용해 성공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도 차별점이 있다. 교재 개발에 참여한 류태우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치매 예방이나 유언장 작성과 같은 노년층에 꼭 필요한 교육을 하다 보니 성도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고 인기가 높다”며 “요즘 노년층은 예전과 달리 재력 건강 의욕 등을 모두 갖춘 ‘액티브 시니어’인 만큼

교회가 노년층을 섬기는 대상이 아닌 사역을 같이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동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승범 서울신대 교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발달과업이 있듯이 노년기를 살아가는 시니어에게도 발달과업이 있다”면서 “영적 성장은 물론 인간발달학 측면에서 접근한 교재 내용을 통해 노년들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이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교육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성은 ‘신년 목회계획을 위한 담임목사 세미나’를 노년 목회를 중심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오는 3월 전국 5개 권역에서 열릴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도 노년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창국 총무는 “향후 노년 목회를 위한 강의자료를 전자파일로 구성해 제공할 것”이라며 “각 교회에서 노년 성도가 더 활력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국민일보

교회학교 eSports대회

2024.10.19.(토)/ 동대전교회



■ 앵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한국교회 최초로 ‘제1회 총회장배 교회학교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e스포츠가 새로운 문화 선교의 시도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 김예슬 기자

다음세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의 신앙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e스포츠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종목은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브롤스타즈’로 전국에서 총 375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8월부터 지역별 예선을 거쳐 결선리그가 진행됐습니다.

■ 류승동 총회장/기독교대한성결교회

요즘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굉장히 감소세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내일을 생각할 때 교회학교 세대나 청소년 세대를 다시금 교회로 불러내는 일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번에 교회학교가 정말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사인 e스포츠 대회를 한국 교계 최초로 저희 교단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예슬 기자

각 팀은 3인으로 구성되었고, 후보 선수까지 포함해 총 5명이 등록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본선에는 서울, 인천, 중부, 충청, 호남, 영남 지역에서 선발된 12팀이 출전했으며, 최종 우승은 경기지방 광주교회팀이 차지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이벤트존도 마련됐습니다. 푸드트럭, 메타버스 성경퀴즈, 종이드론 만들기 같은 즐길거리 외에도 은평교회 오현택 목사의 신앙특강이 진행되어 놀이와 신앙교육의 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했습니다.

■ 박우찬 학생/소망우리교회

교회에서 이런걸 다시 개최하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고 초등학생이 지나면 못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고 싶습니다

■ 김예슬 기자

성결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를 건전한 게임 문화로 교회 안에 도입하며, 전도와 다음세대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 류승동 총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긍정적 의견도 있고 부정적 의견도 있고 그러나 저는 부정적 의견을 잘 해소해 가고 또 그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일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다음세대들을 이끌어내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은 계속 이어가야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예슬 기자

성결교회는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밖 청소년들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e스포츠 대회를 지속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게임을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선교적 시도가 다양한 세대와 소통을 위한 교회학교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CTS뉴스 김예슬입니다.

■ 출처: CTS기독교TV

Pk·Mk 드림캠프

2025.1.15.(수)~17.(금)/ 스플라스리솜덕산



‘제1회 PK·MK 드림캠프’는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이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첫날 개회예배는 목사 부총회장 안성우 목사의 사회로 장로 부총회장 노성배 장로의 기도, 서기 양종원 목사의 성경봉독, 류승동 총회장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류승동 총회장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MK, PK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하고 격려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문했다.

류 총회장은 “말씀에 사로잡히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꽃 피우게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주실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기대가 있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희망이다.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가 있다면이번 캠프를 통해서 모두 다 씻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개회예배를 마친 후에는 16개조로 나뉜 랜드마크미니스트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토리텔링 보드게임 ‘로스트 트레저’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다. 캠프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이제막 처음 만났다는 어색함도 금세 사라지고, 웃음만 가득했다. 이어진 찬양 콘서트에서 드러머 리노는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정상급 드럼 연주를 펼치며 추수감사주일에 사랑하는 자녀 ‘조이’를 떠나보낸 일과 의료사고를 당해 실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경험을 나눴다.

첫날 마지막 일정인 말씀 콘서트는 말씀 랜드마커 미니스트리의 찬양을 시작으로 손재형 장로(청소년부흥특별위원회 서기)의 기도, 강은도 목사(더푸른 교회)의 설교, 기도합주회 등으로 진행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얻는 기쁨을 선사했다. 강은도 목사는 아버지를 목사를 둔 PK이자 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PK와 MK의 삶을 재치있게 표현하면서도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강 목사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연약한 인생이라도 씌름하시며 사용하신다”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 것을 도전했다.

드림캠프 2일차인 16일 바이블톡에서는 청소년부흥특별위원장 정삼열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이어 태수진 선교사(OMS)의 기도 후에 말씀 플러스가 진행됐다. 말씀 플러스에서는 부모님에 이어 2대째 OMS 선교사로 미국 애즈버리대

학교 학생리더십개발센터에서 사역 중인 데이비드 슈나키 목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이어진 트랙강에서도 ‘비전 메이킹’ 특강을 통해 나만의 비전을 발견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데이비드 슈나키 목사는 “비전을 발견하는 일은 긴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다.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기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함께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트랙강의에서는 데이비드 슈나키 목사를 비롯해 황성민 전도사(평안이름 선교사상담팀)가 ‘진로’, 김민철 목사(언덕교회)가 ‘정체성’, 박근호 목사(부평제일교회 부목)가 ‘연애’ 특강을 진행했다. 나른한 오후를 깨우며 PK, MK들을 위한 콘서트도 진행됐다. K-가스펠 시즌2 우승자이자 성결인인 가수 송주섭과 싱어송라이터 이츠미가 1시간 30분 동안 은혜로운 간증과 함께 풍성한 공연을 펼쳤다. 이어진 토크콘서트는 선교국장 송재홍 목사의 사회로 류승동 총회장과 해외선교위원장 김철호 목사, 김민철 목사, 박근호 목사가 패널로 나서 PK, MK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PK, MK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간증도 이어졌다. PK를 대표해 단상에 선 김선준 청년(은혜교회)은 대학생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

의 은혜를 나눴다. 그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며 “대학생활은 단순히 스펙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고 담담히 고백했다. 중국 티베트 MK 출신으로 신촌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 정지원 목사는 “16살 때 등교를 하다가 공안에 끌려가 선교를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티베트에서 추방당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신학을 시작했다”며 “내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스타(문상일 목사)와 김수점 전도사가 힙합 찬양으로 콘서트를 열고 이들의 말씀 묵상과 신앙고백이 담긴 ‘차원’, ‘뽕(베프)’, ‘흔적’, ‘여호와 닛시’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PK, MK들과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은평교회 영어예배부를 담당하는 오현택 목사는 하나님을 만난 여정을 나누며 부르심과 비전을 확립해가는 비결을 간증했다. 저녁집회에서는 정삼열 목사의 기도 후 데이비드 슈나키 목사의 설교에 이어 심석보 목사(우리는교회)가 기도합주회를 인도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도 PK와 MK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오전 바이블톡에서는 이행규 목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어진 말씀 플러스에서는 김철호 목사의 기도 후 류래신목사(부평제일교회)가 PK, MK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폐회예배는 해선위 부위원장 김형배 목사의 집례로 해선위 부위원장 이봉남 장로의 기도, 김철호 목사의 설교 후 류승동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 출처: 한국성결신문

필리핀 목회자 세미나

2025.1.15.(수)~17.(금)/ 스플라스리솜덕산



필리핀성결교회(Philippines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이하 PEHC)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현지인 목회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3월 24-26일 필리핀 클락 서울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열린 필리핀성결교회 성결인대회에 참석해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개최 지원을 요청받은 류승동 총회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외선교위원회, 평신도 기관들과 힘을 모아 함께 진행한 것으로 목사안수식과 총회, 목회자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특히 현지에서 ‘필리핀성결교회’ 이름과 로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집단이 있어 PEHC(총회장 존에워 목사)가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유일한 필리핀성결교회 총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현지 목회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를 위해 류승동 총회장과 문창국 교단 총무가 참석해 대회를 빛냈다. 해외선교위원회 김철호 위원장과 이봉남 부위원장, 송재홍 선교국장 등 교단 선교의 핵심 인물들도 함께했다. 여기에 전국장로회장 김병호 장로, 전국권사회장 박삼숙 권사, 남전도회전련회장 조남재 장로, 여전도회전련회장 사공기 권사, 교회학교전련회장 손경숙 권사 등 평신도 기관장들과 파워미션 대표 김주섭 목사도 물심양면으로 함께했다.

총회 선교국과 필리핀선교부(대표 백영모 선교사)도 행사 준비와 진행에 만

전을 기했다. 무엇보다 현지 목회자들이 교단의 지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국 총회와 해선위, 평신도 기관이 협력해 모든 참석자들의 호텔 숙박과 식사, 교통, PEHC 후원금까지 총 6,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이번 총회에는 필리핀 전역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156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첫날 한국 방문단의 입장으로 시작된 총회 개회예배에서는 사공기 여전련 회장이 기도, 류승동 총회장이 설교하고, 해선위 김철호 위원장과 이봉남 부위원장이 축사, 문창국 교단 총무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존 에릭 총회장이 ‘PEHC 전략적 선교 선언’을 낭독했다. PEHC가 해외선교위원회를 통해 시작된 후 39년 역사를 쌓으며 성장한 것은 해선위의 꾸준한 선교 지원과 교회 건축, 네트워크 구성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행할 선교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클락 선언문’으로 명명한 선언문에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복음전파와 제자 양육을 우선시한다 △청렴성과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며 협력 단체와 후원자에 책임을 다한다 등 5개 항목을 담았다. 해선위원장은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존 에릭 총회장에게 격려금 30만 페소(약 766만원)를 전달했다. 예배 후에는 바로 현지인 목사 안수식이 열려 10명의 성결교회 목회자가 탄생했다. 이들은 현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단독 목회를 한 기준에 부합해 이날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안수식에서는 한국 방문단과 현지 지도자 등이 안수례를 베풀고 신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첫걸음을 축복했다. 또 타교단에서 전입한 13명 목사들에게도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드렸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PEHC 총회가 시작돼 새 임원단을 구성하고 현안을 다뤘다. 이날 저녁부터는 영성집회 등이 차례로 열려 김철호 류승동 김주섭 문창국 송재홍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평신도 단체장들도 각자의 사역을 간증하며 PEHC가 향후 평신도 기관을 어떻게 세워야할 지 방향을 제시했다

■ 출처: 한국성결신문

성결전도왕 나가사키 순교성지 순례

2025.5.14.(수)~17.(토)/ 일본 나가사키



전도에 모범을 보이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실천해 온 전도왕들이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를 순례하며 숭고한 순교신앙을 되새겼다.

지난 5월 14~17일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는 제118년차 성결전도왕을 비롯해 총회장 류승동 목사, 부총회장 노성배 장로, 총회서기 김요한 목사, 총회본부 직원, 김미 영·정민임 일본선교사 등 36명이 참여 했다. 전도왕 중 일부는 개인 사정으로 순례에 참여하지 못했다.

나가사키 순례팀은 사흘간 나가사키의 26인 성인기념관, 오우라성당, 시즈 성당, 소토메, 운젠 지옥계곡, 처자이별 바위, 호코바루 처형장 등 일본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순교의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웃음으로 시작되었던 여행은 순교지에서 눈물과 기도로 바뀌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순교 사건은 순례팀에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

순교 현장에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처절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며 마음속으로 '주여'를 외쳤다.

첫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순례팀은

버스를 타고 나가사키로 이동해 나가사 키침례교회(조은민 목사)에서 수요일에 배를 드렸다. ‘복음전도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류승동 총회장은 “영원한 희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온 전도왕들이 나가사키 순교지에서 복음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순례팀은 둘째 날 나가사키의 대표적 순교지인 26인 성인기념관을 방문 했다. 이곳은 1597년 6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20명의 일본인 신도 등 26명이 순교한 니시자카 언덕에 건립된 자료관 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선교사와 신자 24명이 붙잡혔고 자발적으로 순교 대열에 합류한 2명까지 26명의 성인은 1,000km를 걸어가 1597년 2월 6일 니시자카 언덕에서 십 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셋째 날 방문한 활화산 지역의 온젠 지옥계곡은 배교를 거부한 일본인 신자들이 칼에 온몸을 찢린 채 120도의 뜨거운 화산 열탕에 담금질 당하는 잔혹한 고문을 당하며 순교한 장소다.

니시노소지 공민관 앞묘지에 위치한 ‘처자이별바위’와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호코바루 처형장’에서 순례팀은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1657 년 오무라 동굴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다 붙잡힌 신자 131명은 가족, 친척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형장에서 4열로 줄을 지어 무릎을 꿇은채 참수형을 당했다. 순교자들은 한 마디의 신음도 내지 않고 묵묵히 죽음을 맞이했다.

이번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는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재다짐하는 기회이면서 섬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이었다. 해발 333m 이나사야마 전망대 에서 나가사키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감상하고 일본의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 침묵 의 저자 엔도 슈사쿠 문학관, 오바마 온천마을 등을 둘러보 았으며 죽육과 온천으로 순례의 피로를 풀기도 했다.

■ 출처: 한국성결신문

제118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정책보고서

SMART로 열어가는 총 회 행 정

제117년차~제119년차
(2023년~2025년)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새정보미디어)에 따르면 행정을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행정의 기능을 단순히 정책집행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책형성과 정책 결정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단헌법 제79조(설치목적)에 따르면 총회본부의 존재 이유를 ① 총회의 업무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추진 ② 총회장의 통솔 하에 내외의 모든 업무를 총괄 ③ 총회의 결의사항과 위임 사항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다.

제118년차 총회본부는 “사람에게는 진심(眞心)으로 하나님께 전심(全心)으로”라는 표어 아래 총무를 중심으로 “SMART로 열어가는 총회 행정”을 기치로 다음과 같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1. Superior & Speedy: 탁월한 업무처리와 지체함이 없는 행정

총회본부를 찾는 방문객은 크게 향존위원회나 의회부서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총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지교회의 건축이나 매매 등을 위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문으로 나눌 수 있다.

총회가 위임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총회본부 담당 국장과 직원이 총무의 지도하에 기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후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행정 문서를 발송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총회본부의 모든 업무는 ‘기획’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공사가 중요하듯 한 장의 기획서를 제작하는 일은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 그리고 이후 조치까지의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기획서를 읽는 누구나 이해하고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을 만큼 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총회본부는 신입 직원을 위한 직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을 시행하지 못했다. 미처 자신의 업무를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실무에 투입되어 실수를 통해 업무를 배우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또한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면 원활한 인계인수를 할 틈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총회본부 OJT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서작성과 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기안 작성과 담당하는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심화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한다.

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행정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필요한 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증명서 발급 절차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미비한 행정 사항들을 보완하여 적시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2. Maintenance & Manual: 점검하며 기록하여 누구나 이해하는 행정

총회본부의 행정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표준이다. 지방회는 총회의 행정을 본보기 삼아 업무를 진행하며 지교회는 그 지방회의 행정을 본받는다. 따라서 총회본부가 정확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교단 전체가 흐트러짐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

총회본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세심한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무사안일한 행정은 결국 실수를 낳게 된다. 총회본부가 수립하는 모든 계획은 실무직원들의 상호 확인을 통해 세밀함이 살아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총회본부 행정의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를 관공서 수준으로 끌어올려 누구나 이해하는 행정이 될 수 있게 하겠다.

3. Advanced & Assistance: 지방회와 지교회를 돕는 행정

총회본부는 교단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방회와 지교회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총회본부는 지방회와 지교회의 행정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의무가 있다. 4국 1과의 직원들이 지방회와 지교회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4. Research & Realize: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

총회본부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정책 수립’이다. 모든 정책은 실현할 수 있는 단계로 수립이 되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총회본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국장과 팀장들이 수시로 모여 총회의 각종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선교국과 교육국은 지 교회의 필요에 직접적인 답을 제시해야 하는 부서이므로 현장성을 강화하고 중대형교회부터 작은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B, 플랜C를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5. Timely & Trendy: 시의 적절한 행정

모든 행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발 앞서 길을 안내하고 제시하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회, 지교회와 총회본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복잡하지 않고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아 목회사역에 활용할 수 있고 지방회 행정에 참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정책보고서